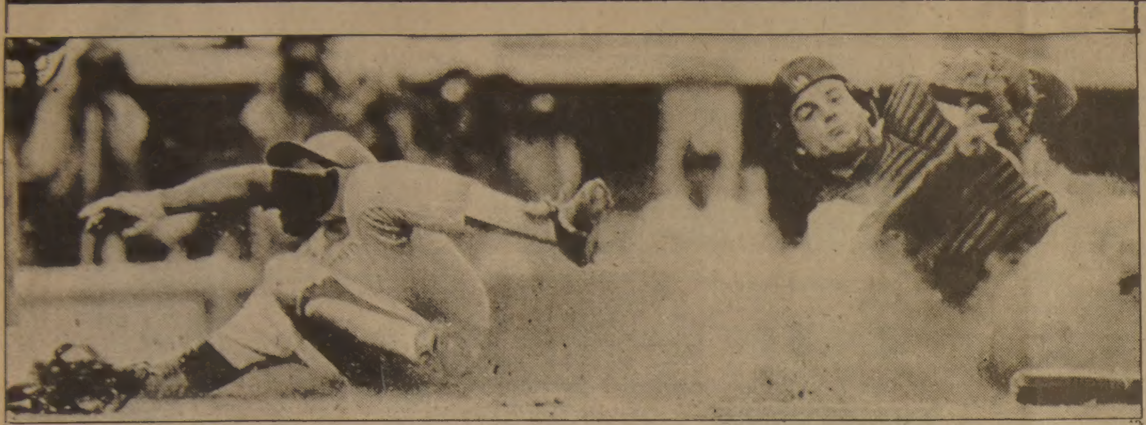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47 1981년10월1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October 17, 1981

OCT 20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엑스포스의 크로메티가 2회초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고 있다. 케처는 다저스의 씨오스시아. 2회초 공격에서 엑스포스가 2점을 올렸다.

## 내셔날리그 챔피온 결정전

# 엑스포스 1승1패

## 2차전서 L.A. 다저스 3:0 셧아웃

(L.A.) 14일 LA다저스 구장에서 속개된 내셔날리그 챔피언쉽 결정전 2차전에서 몬트리얼·엑스포스는 레이·버리스의 호투로 L.A.다저스를 3:0으로 셧아웃, 1승1패로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5전3선승제인 N.L. 챔피언전은 16일부터는 몬트리얼 올림픽 스타디엄으로 장소를 옮겨 두팀과 자웅을 겨룬다. 13일의 1차전에서 다저스에게 5:1로 패한 엑스포스는 이날 2차전에서 프로야구 8년간 생애기록 72승83패의 레이·버리스를 등장시켰다. 버리스는 요소요소를 날카로운 커브 슈터로 다저스 타선을 5안타로 산발, 무실점으로 막았다. 1차전에서 침묵을 지켰던 엑스포스 타선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멕시코 출신 신인 투수 바렌주엘라를 초반부터 두들겨댔다. 2회초 1아웃후, 패리쉬와 제리·화이트가 연속 싱글안타를 날린 후, 웨렌·크로메티가 2루타를 쳐 패리쉬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1번타자 레인스가 또 득점타를 날려 화이트가 2점째를 올렸으나, 크로메티는 다저스의 호송구로 홈에서 태그·아웃 당했다. 이후 몬트리얼은 2개의 안타와 다저스 실책에 힘입어 추가점을 올림으로써 3:0으로 완승했다.

엑스포스는 지난주말 속개된 필라델피아와의 NL동부조 우승 결승전에서고전끝에 3승2패로 메이저리그 진출 13년만에 최초의 디비젼(조)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휴스톤·아스트로에게 2패후 3연승을 올린 LA다저스는 작년도 패배를 설욕, NL서부조 우승을차지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동부조 우승팀 뉴욕·양키즈가 서부조 우승팀 오클랜드·에이스(A·S)를3:1, 13:3으로 연파, 빌리 마틴 감독이 리드하는 A·S를 막바지로 밀어붙였다.

14일 양키스 스타디엄에서 속개된 2차전에서 양키스는 프로야구 챔피온쉽시리즈 신기록인 19개의 안타와 13득점을 올렸다.

2패를 당한후 전 양키스감독이었던 A·S감독 빌리·마틴은"15일 게임만 이기면 16일도 이기고, 마지막 5차전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2차전을 앞두고 마틴감독과 사이가 좋지않았던양키스 구단주 죠지·스테인브레어는"마틴이 전투는 이길지 모르나 결국 양키스가 전쟁을 이길 것이다"고 마틴을 비꼬았다.

빌리·마틴은 양키스가 78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할 때의 감독이었다.

오늘 신문 금·토요 합판 12면 발행

##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 (2)

# 과했던 어린이요금

## 성인요금의 ½ 대신 ⅔요구 차액 $2백의 행방은?

"딱지장수!"

속칭 여행사 종사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딱지'는 비행기표를 말한다. 여행사 이익의 원천은 항공티켓의 커미션이다.

우리는 흔히 여행사를 여권수속을 대행해 주고, 비행기표를 파는 곳 정도로 안다.

그러나 캐나다에 사는 교민들은 한국서 이민수속중 애를 먹던 여권이나 비자등의 문제를 이곳서는 별로 겪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비행기표 구입이며 그 가격이다.

어떤 방식, 어떤 비행기 이용이 가장 값싸고, 안전하며, 편한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이다.

지난 4월 대한항공(KAL)의 어린이요금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토론토 소재한 국제 여행사들은 캐나다정부의 규약을 내세워 한국왕복요금을 대체로 성인 1,246달러, 어린이(2~12세) 830달러씩 받았다.

즉 어린이 요금은 어른 요금의 ⅔였다.

그러나 KAL이 다른 지역에서 받는 어린이요금은 성인요금의 ½이므로 토론토에서의 한국왕복 어린이요금은 약 $623를 받아야 마땅했다. KAL토론토지사는 본사에 대해서는 ⅔대신 ½요금을 적용한다고 보고, 송금액도 성인의 ½분이었다.

KAL서울본사 소식통에 의하면 "캐나다정부는 ⅔선을 규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받는 액수는 ½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⅔와 ½의 차액 약 2백달러는 어디 갔는가?

반면 CP항공사는 어린이요금으로 성인의 ⅔선을 요구, 여행사들은 한국왕복 성인요금은 $1,380 어린이요금은 $920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석송 토론토 KAL지사장은 "KAL은 어린이요금으로 ½을 받게 했으나 여행사들이 임의로 ⅔를 받았으므로 우리 KAL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소장은 "그러나 우리는 여행사에게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토론토시장에서 CP등과의 경쟁상태에 있는 KAL은 여행사들이 KAL 표를 많이 팔아주기를 희망, 여행사들이 차액 2백여 달러를 더 받는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교포로부터 항공표 문의 전화를 받으면 "어린이도 있읍니까?"라고 물어 어린이 손님들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얼마동안 이같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일설에는 수년간 계속됐다는 것이다.

캐나다교포들은 매번 어린이요금만으로도 2백여달러씩을 미국교포들보다 더 지불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례는 본 시리즈①에서 언급했듯이 토론토여행사들이 상호 협정을 맺아 대체로 협정요금을 준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지난봄 ⅔요금은 시정되어 지금은 KAL표의 어린이요금은 성인요금의 ½이다.

(계속)

# 한국문화의 밤

## 300명청중속에 검무등 민속 소개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한인회(회장 박종구)는 한국문화의밤을지난 3일 퍼·시즌스 호텔에서 가졌다.

약 300여명의 청중 가운데 외국인들이 약 250여명이 돼서 흡사 외국인 파티에 초청을 받은것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6시부터 Cocktail파티를 한시간 가진후 7시 백건수씨와(한국어, 영어) 홍송미양(불어)의 사회로 한국문화의밤이 시작됐다.

먼저 이같이 많은 성원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박종구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창훈 총영사가 한국민속소개와 함께 교민들의 자랑을 했으며 브라샤드지역 국회의원(자유당)피에르·메니저 의원의 축사, 주정부 이민성 차관 줄리엣·발세로여사의 축사가 있었다.

피에르 의원은 그의축사를 통해 소속당의 당수인 트루도 수상은 한국을 방문했고, 자기는 이곳 한인회원들과 함께 있게돼서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풀 코스 디너가 있었으며 9시를 조금지나 이채화씨의 북춤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몬트리얼 무용단 어린이 13명이 화관무와 부채춤, 무용단 단장인 이채화씨의 검무와 난의情 이란춤, 윤오장 태권도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특히 지난5월 한인회 후원을얻어 발족한 이 민속무용단은 그동안 오랫동안 닦은 연습기량을 한껏발휘, 이곳에 모인 관중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어 캐네디안 6인으로 구성된 폴엔드 카텔리 악단의 반주로 흥겨운 댄스파티가 있었다.

춤을추는 중간중간에 총영사관과 한국에서 제공한 놋화병, 법주, 인삼등이 Door Prize로 시상됐다.

이날 입장료는 1인당 20달러 였으나 몇몇정부인사 및 한국에 관련된 인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도 입장료를 받았는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 이곳 캐네디안들이 한국에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검무를 하는 몬트리얼 무용단 이채화단장

# 개천절 기념 리셉숀

## 고위관리등 대성황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총영사관 (총영사 김창훈)은 개천절을기해 지난 10월9일 한국을도와주고 한국에 관련이많은 사람들을 초청, 리셉션을가졌다.

약 300명의 캐나다 정부인사, 무역인, 교민들이모인 가운데 열린 이 리셉션은 시내 세인트·스테판 클럽에서 6~8시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총영사관이 설치되면서 총영사관 Open및국경일 기념행사로 열렸던 장소인데작년도에 비해 정부인사들이 눈에띄게 많이 늘었다. 이것은 그 간 1년동안 김총영사의 능동외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외무장관 대리로 참석한 의전실장 조리·케리씨는오타와에서 직접 운전을하고 몬트리얼에 왔다가 리셉션이 끝나는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인들을만나고 한국을 좀더 깊이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서 흔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퀘벡주정부 에서는 아세아 태평양지역 시브국장, 한국담당관 라비쾌, 이민차관주리엣·말셀로, 동경대사관에 발령, 한국도 함께 담당하게된 전상공차관 메르제씨도 참석했다.

이날은 비가오며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 대 성황을 이루었다.

외교관으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하이티의 총영사들이 참석했으며, 유엔기구인 세계항공기구(ICAO)의장 쾌타이트 박사외얼굴도 보였으며 한국전 참전용사 쉐이날 22연대장(당시)의 얼굴도 보였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샾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 922-3111 R) 439-8885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W

# 1200명관람, 41점 팔려
# 초대작가 합동전 성료
## 양로원설립의 주추돌 놓아

토론토한인와이즈맨즈클럽(회장 차선겸)병설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가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현대한국작가초대전」은시내 쉐라톤 호텔 윈저룸에서 6일간의 전시회를 마치고 13일밤 막을내렸다.

서울에서 4명의 미술가 이양원(동양화 동덕여대교수), 한풍렬(동양화 상명여사대 강사), 조용각(서양화 추계예술대 조교수), 유종민(조각 관동대학 부교수) 및 캐나다교포미술가 장연탁(조각), 나영삼(회화), 권승연(서양화)의 3씨의 서울대학 미대출신 7인의 동양화, 서양화, 조각, 합동전시회는 이곳 교포는물론타민족들에게 현대한국 순수미술의 맛을 감상시킨 면에서 의의가 큰 행사였다.

그림(동양화, 서양화, 추상화)54점, 조각 15점이 전시품중 41점이 팔려 3만7천8백달러의 수입이 있었다.

그중 이양원씨의 동양화들은 매진됐고, 한풍렬씨의 동양화 19점중 17점이 팔렸으며, 장연탁씨의 출품조각 5점중2점, 유종민씨의조각(주조)10점중 4점이 팔렸다.

전시품 가격은 최고 2천2백달러부터 최저 400달러였다.

주최측에 의하면 6일간 전시기간중 관람자 누계는 약 1천2백명이며, 그중 반수 가량은 백인등 타민족들이어서 한국미술이 국제적 소개가된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전시회 기간중 미담은전 노년회장(김시몬)이 500달러의 그림 한점을 사고, 관제자들의 노고를 치하, 점심대접용으로 100달러를주최측에 희사했으며, 현 노년회장 정인기씨도 1천400달러의 그림을 사주었다.

한편 이민1년밖에 안되어 생활안정이 아직안된교포 황철수씨는 저금을 털어 500달러의 그림을 사고 출품자 일동을 자택에초청, 식사대접을 하여 관계자들을 감동케한 미담도 있다.

이번 작품판매 총수입 3만7천800달러중 작가들의 작품료(50%지불), 서울 작가들의 체재비, 전시회경비(대관료, 프로그램, 광고료등)를 공제한 수익금 약 1만2천500달러는 양로원 건립기금으로 적립케 됐다한다.

건립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선모금 행사등을 계속실시하며, 제1차 목표액 10만달러를 달성하면 건립사업을 한인회등 범교민단체에 넘겨줄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난후 초대작가들중 한풍렬씨는"작품적 측면에서 보면 내용이있는 행사였고, 다른 측면으로는 교포사회의 새로운 활동에 호응이 컸음에 흐뭇함을느꼈다. 주최측의 성의있는열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작품에대한 이해도가 높은것을 알았다. 동양화, 서양화, 조각품등 이번 전시회는순수미술의 종합전이란 인상을 준다. 교포작가와 모국작가의 합동전시회가 앞으로도 매년 있었으면 교포사회에 도움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서양화가인 조용각씨는 뜻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다. 주선해준 주최측에 감사한다. 교포사회가 안정돼 보이고, 열심히들 살고계심이 기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카미술교류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조각가 유종민씨는"전시회는 여러사람이 많은 관심을갖고 성원해 주셔서 성황을 이루었다. 아쉬운 점은' 그림보다 조각에대한 이해가 적은것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작가 일행은 16일토론토출발, 뉴욕에들러 미술계를 살펴보고 귀국할 예정이다.

◇조각가 유종민씨의 청동으로된 작품

## 자녀 2명 이하면 특혜
### 한국, 인구증가 억제위해
### 86년까지 1.57% 선으로

(서울10일=연합)내년부터 시작되는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동안 인구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을굳힌 한국정부는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각종 혜택과 장려금을 지불할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특혜중에는 수입세 공제, 주택우선권, 교육비보조, 의료보험등이 있다.

정부는 86년까지 인구증가율을 현 1.67%에서1.57%로 내리기 위해 전국적인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개 관계부처에서 준비된 초안은 가족계획프로그램확장, 이민촉진, 정부의인구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적캠페인도 아울러 실시할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조처가 없으면86년의 한국인구는 현재보다 6백만명이 더 증가, 4천4백만명이 된다. 이것은 현 캐나다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한다.

## NWA주3회就航
### 25일부터 서울—시카고直行 再開
### 每화·목·일에, 시카고發 직행은 폐지

(시카고지사)

지난 6월에 중단되었던 노스웨스트 항공의 서울발 시카고 직행 노선이 10월25일부터 재개된다.

지금까지 서울발 시카고직행의 항공노선이 없어 동경이나 서애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카고로 오는 승객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 노스웨스트의 이번 조치로 불편을 덜게 된것.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오는 25일부터 매주 화·목·일요일 3차례씩 서울발 시카고 직행노선의 취항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와 아울러 현재 주1회씩 실시하고 있는 시카고발 서울직행 노선을 폐지한다.

노스웨스트의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시카고로 들어오는 승객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시카고에서 서울로 나가는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항공관계사의 사정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따라 서울발 시카고행의 여행이 편리해진 대신 시카고발 서울행 여행은 다소 불편을 겪게 되었다.

## 한국어 국제공용어로
### 라이온스클럽 채택

(서울13일=연합)국제적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은 한국어를 추가 10개 언어를 라이온스의 국제회합에서 사용할수 있는 공식언어로 채택했다. 이 결정은 이달초 일본 교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결정됐다.

10개 언어는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핀랜드어, 스캔디나비아어, 스페인어, 폴투칼어, 이태리어, 일본어이다.

라이온스클럽은 자유, 지성, 국가방위를 모토로하는 봉사클럽으로 한국은 많은 회원을 가져 클럽내에서의 한국위치는 중요하다.

### 교민동정

◆정영모(탁구협회장): 지난 10일 웨스트·웃 중학교에서 벌어진 탁구선수권대회는 각종다른행사로 인해, 단체전 출전팀이 극히 부진, 쏟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어 맥이 풀렸다고 한마디. 다행히 개인전 에 선수들이 많이 참석해 주어 체면은 세웠으나 시합시기, 출전팀 연락관계등, 이번기회를 거울삼아 내년초에 벌어질 탁구대회는 멋있게 한번해보겠다고.

## 社說

### —「현대한국초대작가전」의 결산

토론토에서 획기적인 한인계 종합 미술잔치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에 걸쳐 성공리에 펼쳐졌다.

양로원건립위원회가 건립기금 마련의 일환으로실시한 「현대한국작가초대전」으로 서울서 4명, 캐나다 교포미술가3명의 출품으로 이루어진 동양화·서양화·조각품의 명실 아우른 이 순수미술 종합전시회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캐나다땅에 옮겨 교포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감상을 통해 정서및 한국미를 맛들이게한 의의 깊은 행사였다 하겠다. 총관람자 약1200명중 반수가 백인등외국인이었음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3만7천8백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양로원 건립기금에 보탬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시회의 의의및시정할 점을 세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대를 숨쉬는 생동한 한국미술을 캐나다땅에 옮겨 관람자들의 정신소양에 보탬을 준점을 꼽겠다. 출품자 7명은 전원 서울대 미대 출신이며, 4명은 한국에서 건실한 중견미술인으로 활약중이고 미대 교수직도 겸하고 있는 비중 큰 현역이요, 캐나다 현지작가들 역시 그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창작활동이 왕성한 터라, 그들의 작품은 하나같이 고차원의 수준을 견지하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행사를 계기로장차 한국대 캐나다의 교환전시회등 미술교류가 본격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미술의 캐나다진출과 이땅 교포미술품의 모국진출의 유기적 유대맺음이 차제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중화랑을 찾아온 외국인들은한국미술의 현주소를 목격하고 각자나름의 감회를 안고 돌아갔을 것이고, 교포관람자들도 오랜만에 모국적 정경과 예술의 향취를 만끽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팔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양화, 특히 한국풍습을 담은 화폭들이었음으로 미루어 역시 이색적 그림이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둘째로 행사적 측면에서 볼때, 장소가 찾기힘든 구석진 방이었음과 작품의수와크기(호수)에 비해 전시벽이 좁아서 어떤 벽에는 아래위로 4폭을 겹쳐 걸어 감상에 조급함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진정한 예술품 감상에는 여유있는 공간배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전시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입구에서부터 달그림들을 나열하여 단조로운 첫인상을 주었는데, 다른 종류의 그림들과 섞어서 다양한 배치를 했더면 하는 아쉬움이 앞섰고, 조각품들도 중앙에만 모아둘것이아니라, 코너에도 안치하고운치있는 안배를 했었으면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세째로 기금마련을 위한 계획면에서 살펴볼때, 유산층 상대로 기천달러짜리 대형그림만 위주로 진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중산층 교민의「양로원 건립」 다수협찬을 기대하여, 기백달러 기십달러짜리 소품들도 많아 진열하여 명실 아우른 다수 교민들이 참여하는자선전시회의 성격을 살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부유층 교포들의 움직임이없어 주최측은 적잖이 실망을 안았을 것이다.

그 반면 가대외의 방면에서 온정어린 동참(同參)의 손길이 뻗어 그들이 복돋움을 받았다한다. 예컨대 김시몬, 정인기, 황철수씨등의 온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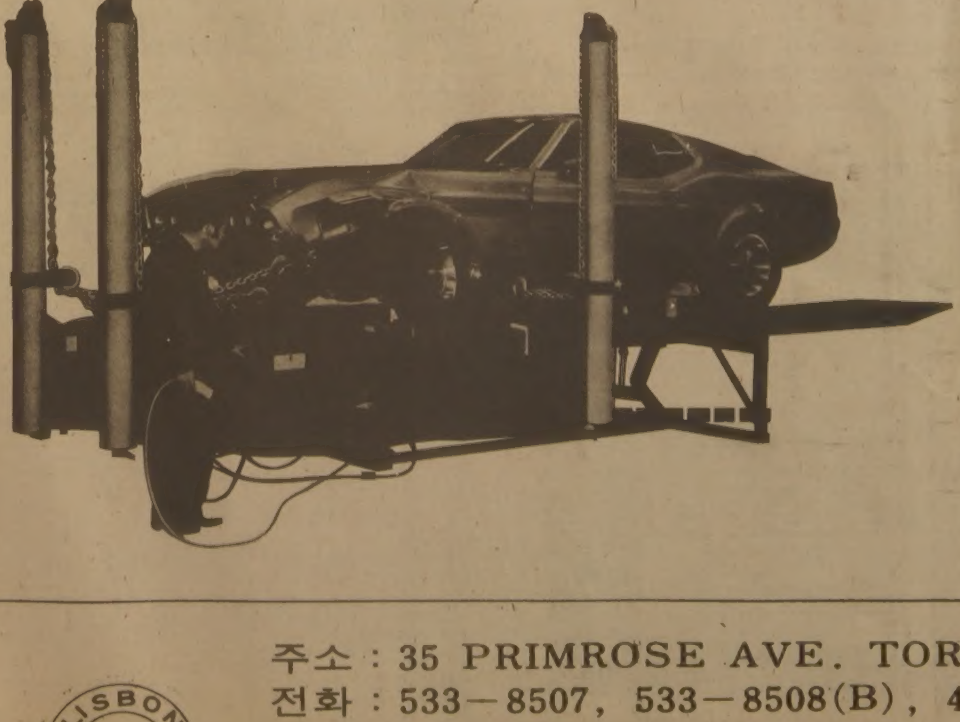
아뭏든 뜻있는 일을 의욕적으로 해낸 주최측에격려를 보내며, 좌절하지말고 앞으로도 의의있고 효과적인 기금마련 행사를 계속 벌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구의 반대쪽을 멀다않고 작품들을 들고달려와준 4명의 모국미술가들과 현지작가들의 회생적 협동에 교민의 이름으로감사를 표하며, 금후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성의와 우정을 더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개업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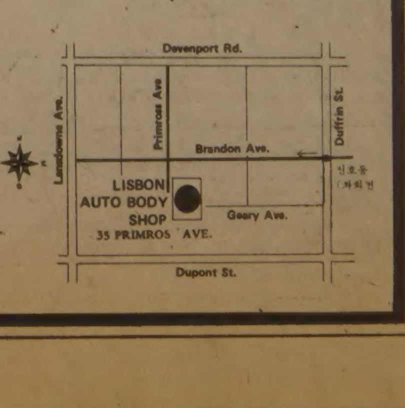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 A CLASS LICENCED BODY MAN
- A CLASS LICENCED PAINTER
- GUARANTEE WORKMAN SHIP
- 사고후 보험처리
- OVEN BAKED FINISH
- COMPLETE BODY WORK
- TOWING써비스
- 수리중 차대여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BODY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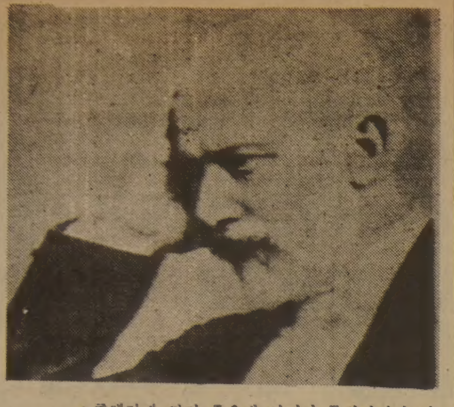
# 차이코프스키는 自殺했다

## 콜레라로 因한 病死說 뒤집혀

「비창」,「백조의 호수」,「잠자는 미녀」등으로 우리귀에 익은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콜레라로 사망한것이 아니고 독약에 의한 자살이었음이 밝혀졌다.

2년전 미국으로 이민온 소련학자 알렉산더 아나톨예브나 올로바는 차이코프스키와 법과대학 동창생으로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검찰총장 야코비의 증언을 그 부인으로부터 듣고 이같은 결론을 지었다.

올로바는 차이코프스키가 콜레라로 사망했다면 그의 집은 출입금지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일이 없으며 그의 시신앞에 조객이16명이나 모였었고 ▲침대보가 태워진것이 아니고 세탁됐으며 ▲



▲콜레라에 걸려 죽은게 아니라 동성연애에 의한 자살로 판명된 차이코프스키

## 美國에 이민온 소련학자 올로바가 밝혀
## "貴族과의 동성연애 탄로나 독약마셨다"
### 당시 검찰총장 증언이 명백한 근거라고

콜레라 사망자라면 시체를 아연관에 넣어 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코프스키의 관은 뚜껑이 열린채 조객이 키스까지한 사실등을 이유를 들어 콜레라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정 러시아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1803년 11월6일 차이코프스키는 끓이지 않은 찬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감염돼 사망한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올로바가 주장하는 차이코프스키 자살내막은 다음과 같다.

차이코프스키는 강력한 세력을 소유한 한 공작의 남자조카와 동성연애를 했었다. 이 사실을안 공작은 자신의 체면을 감안, 재정러시아의 황제에게 사실을 고하는 불평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황제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야코비에게 이를 건네주며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명했다.

차이코프스키와 모스코바 법과 대학동창생인 야코비는 차이코프스키의 동성연애를 모교의 수치로 생각한끝에 동창모임을 소집했다.

이 모임에서 동창들은 차이코프스키에게 자살을강요, 결국 차이코프스키는 독약을 마셨다는 것이다.

---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 WHERE CAN I WASH MY HANDS?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국인 동료에게 한국음식도소개할겸하여 자기집 저녁식사에 초대했던 교포가 나에게 들려준 얘기다.

식사가 시작되기전에 미국인친구가 Where can I wash my hands? 라고 하여서 한국식으로 친절하게 물수건을 가져다주니까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은 May I use your bathroom, please?라고 하여서 그제서야 화장실로 안내했다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준것이다。이때 wash hands하면 문자 그대로는 손씻다의 뜻이나 화장실을 의미하기도 하는것이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하는 표현은 참으로 많다。집안에서는 bathroom, 학교나 극장같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rest room, men's room등을 사용한다。Where can I wash my hands?는 집안이나 그밖에 아무데서도 점잖게 화장실을 찾는 표현이다。

A : Excuse me. Where can I wash my hands?
B : I'm not sure. You'd better check at the information desk.
A : Which way is the information desk?
B : It's down the hall and on your right.
A : Let's see. I go down this hall and it'll be on my right.
B : That's right. You can't miss it.
A : 실례합니다。화장실이 어디인가요?
B : 잘 모르겠읍니다。안내계에 물어보시죠。
A : 안내계로 가려면 어떻게가죠?
B : 홀 오른쪽에 있읍니다。
A : 생각좀 해보죠。이 홀로가면 내오른 쪽이란 말씀이죠。
B : 맞습니다。틀림없이찾을겁니다。

※infomation desk:안내계
You can't miss it.:틀림없이 찾을것이다。
「발음」can't:「캔트」가 아니고「캐」에 힘을주어 「캐-앤」。

---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⑰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쇠솥이 걸은 뼈다귀에서나온 기름과 고기기름이 숯검댕이와 범벅이되어 새까맣게 되었지만 솥안에는 사슴기름을 끓이고 있었다.

에프트는 옆에 잔뜩 쌓여있는 고깃더미에서 흰 기름만 떼내서 펄펄 끓고있는 솥에 계속 집어넣고 있었다.

헤콰우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강둑에 앉아 있었고, 넘어가고 있는 진홍색 햇볕을 받고, 새빨간 고기덩이는 큰 불이 타고있는 것처럼 이글거렸다.

헤콰우는 벨리카리를 보자 소리를 질렀다. "인석아 이리오너라! 네가 신나게 온종일 돌아다니며 오리알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나혼자서 이 고기를 다 썰어놓았다. 이 썰어논 고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잘 널고 땅에 닿지않게 하여라."

벨리카리는 활짝 웃고나서 아버지를 도와 겨울용 식량을 말리러 나갔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에프트는 부자를 모닥불 주위로 불렀다. 세명의 에스키모가 저녁을 먹고나자 밤이 되었다. 낮에 있었던사냥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웃고 또 노래도 했다.

에프트가 굳은 기름덩이를 젖은이끼에 싸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니 헤콰우와 벨리카리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기름덩이에서 뼈조각이나 검불을 찾아낼것처럼 들여다 보았다.

헤콰우는 잡을 사슴을 처리하고 강입구까지 돌아오는 중이었다. 떠내려가는 사슴을 지나칠 때마다 멈춰서 앞다리를 꼬여 사슴의 콧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지 않도록 뿔뒤를 교묘하게 묶어 코가 물위로 올라 오도록 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카약이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거렸다. 헤콰우는 노를 젓느라고 몸을 앞으로 꾸부렸다. 다 낡은 파카 밑으로 근육은 힘이 빠지고, 땀이 비오듯 흘러 내렸으며, 그의 카약은 강의 급류에 말려들어가 사슴이 건너는 길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었다. 그는 그 중간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까마귀를 발견했다. 헤콰우는 재빨리 움켜잡아 배안에다 집어넣고 카약을 저어 아내가 기다리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날 늦게까지 헤콰우의 아들 벨리카리는 카쿠트·레이크를 돌아 수마일을 걸어다녔다. 그는 죽은 사슴을 발견할 때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내장을 빼내고, 육지로 끌어올려 놓았다. 가죽이 좋으면 익숙한 솜씨를 발휘해서 가죽을 벗기고, 사슴을 네쪽으로 갈라 주위에 있는 언덕위 오목한 곳에 숨겨두었다.

고기 위에다 혹은 주위에다 벨리카리는 오소리를 쫓아버리기 위하여 큰 돌로 농보를 세웠다. 그 위에다가 아직도 푸른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는 사슴뿔을 얹어놓고, 눈이 내릴 때 고기를 어디쯤 묻어두었는지 알리는 표시로 삼았다.

벨리카리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을때, 아버지가 배낭에서 까마귀의 부리와 발목을 꺼냈다. 헤콰우는 이 부리와 발목을 작은 가죽부대에 넣어 에프트가 주름진 얼굴로검에 질린 엄숙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의파카뒤에 그것을 실로 꿰매달아 주었다.

벨리카리가 아버지에게 당황한 얼굴을 돌리자, 늙은 사냥꾼은 꺼져가는 불옆에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을 바라보는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뻗혀있는 캄캄한 평원을 향하여"에프트의아들아!"하고 말했다.

"에프트의 아들아! 너의 일생을 통하여 네가 꼭기억할것이 있느니라. 언젠가 시간이오면 너는 까마귀의 목소리를 들을때가 올것이다. 밤중에 까마귀의 신이 부르면 너는 그것을 듣고 그 신이 말하는대로 해야할 것이다. 오늘 너는 까마귀를 떨어뜨렸다 그렇지만 까마귀는 다른새들처럼 죽지않는다. 나는 일생을통하여 아무도 까마귀에 가까이 접근해서 잡았다는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나는 이 까마귀의 신이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선택한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

〈독자수상〉

## 철부지의 꿈

이 미 영(Thornhill거주)

땅이 꺼질듯한 보고픔에 몸부림치던 날.

추호도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나를낳은 조국과 부모곁을 뒤로하고도 코끝하나시큰하지 않고, 늠름히 떠나오던그날, 거울앞에 비친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거만해 보일정도로 들떠있었다.

"너하나만을 믿고 살아왔다"면서 슬퍼우시던 친정어머님의 눈물도 나로선 '아랑곳 없이 오직 그이와만의 만남이 내 생의 전부인양 숨막힐듯 저려오는벅찬 가슴을 억제하며 단숨에 치달려온 이곳.

그러나 철부지의 아름다운 환상속에 신혼의꿈은날 회롱하고 있었다. 이 아픔이 사랑한죄의 댓가라면달게 받으리라고 이를 깨물며 지낸 칠년이란 이민생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목을 조이는 고통과함께 운명이라 체념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신의장난이—

실오라기하나 잡을수 없고, 의지할곳 없어 불안에 떨던 타국생활은 찬물을끼얹는듯한 소름끼치는 외로움으로 하여금 나 자신도 걷잡을수 없는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다.

애정과 모정을 저울질하던 어리석음이, 불효한 자식에서부터 미움받은 아내에 이르기까지 미쳐버릴것만 같던 지난날

그러나 그토록 애타게소원하던 핏덩어리 첫아들을 가슴에 안아보던날 아가의 볼을 마구비비며 비오듯쏟아지는 눈물을 가눌길없어 어쩔줄 몰라하던 난 이제 홀로 육십평생을 오직 칠남매만을 위해 아낌없이헌신해오신 우리 시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진한정을 난 왜 좀더 일찍 깨닫지 못했는지 지난날의 죄스러운마음을 숨길수 없다.

뼈를깎는 아픔과 살을에는 고통도 마다 않으시고 한 사람도 빈틈없이 대쪽처럼 곧고 바르게 길러내신 우리 어머님의 숨은 희생은 다 성장한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그칠줄 모른다.

이제 나도 어머님의 강한 집념을 닮은 며느리가 되어야 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유있는 삶을…….

과거나 미래에 예민한약한 소녀가 아닌, 현실에 적응할줄 아는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참고 견디며 노력하는 삶을 키우리라.

훗날 우리 이세들이 이넓은 곳에서 티없이 맘껏 깊은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명감에하루 16시간의 패니를 줍는 고된 노동이지만 지칠줄모른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6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핀·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킹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W.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6-9016

번역 CHARLES YU(유좌석) 번역은
통역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월요일만 합니다.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E JEWELLERY 소에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 | 최소3번 | 1주5번 |
|---|---|---|---|
| C-1(1칸) | .5"×4" | $10 | $13 |
| C-2(2칸) | 1"×4" | $20 | $26 |
| C-3(3칸) | 1.5×4" | $30 | $39 |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문의처 본사 광고국 : 533-2361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광고는 훌륭한 신문을,
훌륭한 신문은 훌륭한 사회를 만듭니다

광고는 기사와 함께 신문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사로 가득찬 신문이더라도
생기가 없는 광고,
아이디어가 마른 광고는
그 신문은 절름발이식 보기 나쁜 얼굴로 독자들의 눈에 반영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일보-토론토〉는 6월1일 역사적인 일간지로 비약한지 29일 만에 우편파업을 당해 6주간이나 극심한 상황에 처했으나
훌륭한 광고주들의 성원결과 용기백배, 우편파업중에도 단 1호도 결간 없이 신문을 발행했읍니다.
좋은 광고의 덕분이었읍니다.
광고효과는 뛰어납니다. 즉 토론토·스타 같이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전 교민중의 구독률은 전 캐네디안중〈스타〉지 독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본보를 이용했던 많은 비 교민광고주들도 광고효과에 놀라 계속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교민 사업가 여러분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보 광고란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교민들은
주위 캐네디안 업체에 본보의 존재를 알려 광고를 내게해 주십시오.
좋은 광고는 좋은 신문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송광호·최성조·곽영신 삼가
대표전화 : (416) 533-236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저녁 풀타임 또는 파타임
웨이츄레스 구함
☎ : 757－6334

농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할사람을
구합니다.
☎ : 519－833－9827

디시워셔 구함 : 저녁6시～10시
시간당 $5.00, 저녁제공.
☎ : 532－5966 KAY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20～40세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사무원 모집 :
영어 능통하고 타이핑 경험자 우대함, 일이 쉽고 자유시간 많음.
SON BROTHERS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MADE)
☎ : 763－1155

경험있는 풀타임 가게 헬퍼구함 : 오후4시～12시, 월 천달러 보장, 단 자동차 있어야 함.
☎ : 839－1879 스카보로 거주자 환영

캐시어 구함(EVENING PART TIME)
☎ : 767－0762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경험있는 스위스 자수기계 OPERATOR를 급히 구합니다. 시간당 $5이상 핀치와 웨스톤 근방
☎ 746－0054

**BOEKAMT MANUFACTURING INC.**
REQUIRE FULL-TIME HELPER, FOR LIGHT ASSEMBLY WORK
MON. ~FRI. 8AM～4 : 30PM
APPLICANTS MUST KNOW SOME ENGLISH
APPLY IN PERSON
910 MATHESON BLVD. MISS.

세일즈 하실분 구함 :
GOOD코미숀(오전7시～오전10시, 연락바람)
☎ : 492－7505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지역
☎ : 483－7444

##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DUPONT & SYMINGTON
☎ : 537－0892

오릴리아지역·매상좋은 비지니스 :
그로서리·바라이어티·미니마켙, 연매상 35만달러 이상, 3베드룸 살림집및 2베드룸 아파트 있음, 포스트 오피스.
문의 : ELEANOR TODISH (1) 862－0788 ext. 53
A. E. LEPAGE(ONT.) LTD.

개인집 팝니다 : 11⅝% 몰개지 2(4개 화장실과 목욕탕)
2가족 싸이즈도됨, $10,000다운(DEVENPORT & SYMINGTON) ☎ : 536－8506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동양음식 겸한식당 :
주매상 2,000달러, 권리금 35,000달러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ER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매매코자 합니다 :
오후6시30분이후 연락바람
☎ 533－2157. 미스터 최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한국안내**
5 3 3 － 2 3 6 1

도시인의 하루는 바쁜生活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서 윤택한 살림으로 안내하는 생활의 길잡이 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일자리를 주고 받거나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분실물을 찾으려는 모든 분들의 生活정보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에 매일 매일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입증하는것이 바로 매일 매일 게재되는 한국안내광고 숫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수하겠읍니다.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900과 $3,500
2층에 살림집 있음,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매 매
성업중인 스카보로 몰안에 있는 스모크 & 기프트 샾을 급매 합니다.
주매상 : 3000～3500달러
☎ : 281－9540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피아노 매매 : LESAGE피아노(아파트용 싸이즈)
액썰런트 콘디숀
☎ : 741－5949 MRS. 민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그린애플뷰틱(양장점)매도
연매상 : 13만불, 리스 : 1년반＋5년옵숀
렌 트 : $680＋TAX & MAINTENANCE
순수익 : 연 $35000보장,
아스킹 : $35000＋스탁
제인파크 프라자 ☎ : 766－6997 ASK. TANYA

## 집·방세·하숙

사무실창소 렌트 : 대강 600Sq. Feet. 2층.
712 BLOOR ST. W.
☎ : 495－2172(크리스티와 블루어 앞)

##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최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의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지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번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8(B), 279－8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6 닐파·김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 英語교육…國校 4학년부터

## 내년實施 간단한 會話중심으로

내년부터 4학년이상의 국민학교학생들을 상대로 특별활동시간에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을 각학교별여건에따라 실시할수 있게됐다。13일 문교부는 지금까지 정규 교과과목으로 실시할지 여부를둘러싸고 논란이많았던 국민학교 영어교육문제를 일단 특별활동시간에만 시킬수있도록 결정짓고 내년 1학기부터 4、5、6학년을 상대로1주1시간정도 가르치도록 했다。 문교부당국은『이같은 결정은 상영어교육을위해 국민학교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기위한것』이라고 밝히고『그러나 정규교과과정이아니라 각학교실정에따라 1주일1시간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 일부를 활용、간단한 회화중심으로가르치도록 권장하는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문교부 관계자는『저학년때부터 외국어 교육을시키는것은 아직 문제점이 있는것으로보아 4학년이상만을대상으로 한것』이라고 말하고『영어 조기교육자체에 대해찬반의견이 있으나 어릴때부터 직접 영어교습법을 가르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우리의 교육여건을 감안、실정에맞는 학교부터 회화중심교육으로 시작、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문교부가 마련한『외국어교육강화방안』은 이밖에▲우수한 외국어교사의 양성▲현직외국어교사들의 재교육 ▲외국어교육과정및 교과서개편 ▲외국어지도방법개선▲외국어교육평가방법개선등 각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유능한 교사양성을 위해서 사범계통외국어교육과의 교과과정을개편、듣기、말하기、읽기、쓰기등 외국어의 4가지기능을고루배양할수 있도록하고 교사임용고사에 회화능력시험과목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또 현직교사재교육을 위해연간 5백명씩 6개월과정의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금년겨울방학때부터 각시도교위별로 외국인강사를 초청、특별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또 중고교 외국어교과서를산회화체 문장을 늘리는방향으로 개편、83학년도부터 사용토록하고 11개외국어 교육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인문고교에서 대화식 수업에중점을두어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중고교 성적평가방법에 회화능력을 성적으로 반영하고 고교및 대학입시에서 듣기능력을 평가할수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키로 하는한편 대입학력고사에도 제2외국어를 성적에 반영시키는방안등도 계속 연구키로 했다。

## 特活시간이용 週1시간

### 中高교과서도 改編、對話式수업置重

# 低質炭 不當이득 還收조치

## 國會 質問·答辯 所得분배구조不均衡 시정

南惠祐국무총리는 13일 최근의 低質연탄사건에대해조사가 끝나는대로 연탄제조업자들이 취득한 不當利得分에 대해 還收조치등 적절한조치를 마련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이날 국회本會議의 사회문제에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행정수도건설은 지난 77년발표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린벨트해제 문제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현재의 테두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총리실과 경제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있다고 밝히면서「소득 재분배와 절대빈곤문제」의 해결을위한 정부의10개 기본대책과 계획을 설명했다。

南총리가 밝힌 10개기본대책은▲정부는 七顚八起의 노력으로 인플레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低邊의 고용기회를 확대、연3%씩 늘어나는 노동력의 흡수를위해 연7~8%의 경제성장을 계속유지하며▲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서민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저임금에서 高賃金으로 발전시키기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중점을두고▲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육성하고▲농업·어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해 농·어민소득을 증대하며▲5개년경제개발기간중公共부문에서57만호의서민주택을건설하며▲의료보험確災보험등보험제도를확충、86년까지는 의료보험대상을 현9백만에서 2천3백만명이상으로 확대▲물가안정의 전망이 확실시될경우 국민복지연금제도실시▲저소득층을 稅制面에서 배려등이다。

이날하오의 본회의는 李憲琦·金正禮 (이상民正)金珍培(民韓) 李成一의원 (국민)등4명이 나서 질문을 한데대해 南惠祐총리만 답변을하고 다른 각료들의 답변은14일상오 본회의를열어 듣기로 했다。

국회는 14일 사회문제에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본회의의 對정부질문을 모두마치고 15일부터 常委활동에 들어간다。

李憲琦의원 (民正) 은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있다고 전제『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성장과분배를 조화시키는방향에서 5차5개년계획의 내용을 修正·보완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이어 有害불량식품 근절책과 賃金현실화등을 추궁、李의원은 의료보험문제에대해 중소기업근로자、도시영세민、농어민등 저소득계층의 70·5%가 施惠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고 지적、『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언제 어떤방법으로 확대、적용될것인지 또 의료망과 의료시설을 어떻게 확충할것인가』고 따졌다。

李成一의원 (국민)은 최근의 低質炭사건을들어『엄청난 피해를 초래케한 관계당국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고 묻고▲장기주택정책수립▲5大江 水質汚染의 實相공개등 공해대책▲농민의 適正이윤을 보장하는 收買價의제도화▲국토개발정책의 衡平化▲그리고 지난77년에 나왔던「行政首都」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金珍培의원(民韓)은『경찰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人權옹호이며 이를 위해 경찰의수사권 獨立이 필요하지 않은가』고 묻고 任意同行을 止揚할것을 촉구했다。

# 韓·코스타리카頂上회담 友好·經協확대 合意

◇13일 청와대에서 코스타리카의 카라소 대통령내외와 선물을 교환하고있는 全斗煥 대통령내외。

全斗煥 대통령은 13일상오 청와대에서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카라소·오디오대통령을 맞아 頂上회담을갖고東北亞및 中南美정세를 비롯한 80년대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약1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단독회담에서 두나라 대통령은또 양국간의 友好증진및경제、기술협력의확대 필요성에 입장을같이하고 이분야에 관한 발전을위해 양국정부간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李雄熙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카라소 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 한국정부의 평화적인 통일노력을 높이평가하면서 코스타리카정부는 이를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全대통령은 頂上회담에앞서 카라소 대통령에게 無窮花大勳章을 주었다。

頂上회담이 진행되는동안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카라소 대통령부인 셀레돈여사를 따로접견、환담을 나눴다。

### 忍耐·誠實로韓半島평화실현 全大統領 晩餐연설

全斗煥 대통령은 13일『北韓당국은 1·12및 6·5제의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면서오히려 도발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韓半島의 긴장을 高潮시키고있다』고 지적하고『그러나 이같은 北韓의 적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永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따라서 인내와 성실로서 평화의 실현을위해 계속 모든노력을 더할 결심』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訪韓중인 코스타리카의 카라소 대통령내외를위해 만찬을 베푼자리에서 연설을 통해『한국과 코스타리카는 비록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太平洋국가일뿐아니라 자유·평화·번영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있는 同伴者』라고 밝히고『따라서 두나라가 상호유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카라소 대통령은 이에대한 答辭에서『한국과 같이 前衛의 최일선에 위치하여 전체주의에 항거하고 체제의 전복과 문화의 同質性을 파괴하려드는 제반획책을 분쇄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고있는 국가에대해 전세계 자유민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고말했다。

### 카라소、國會연설 '코스타리카는 人權의 나라'

訪韓중인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카라소 대통령은 13일하오 국회본회의에서행한 연설을통해『본인은 한국정부및 국민과 友誼와 兄弟愛의 盟約을 조인하기위해 이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히고『역사의 한획을 긋는 시기에처하여 우리두나라가 인간主의 가치를 보호키위해 아무런유보없이 이를 서약한것은 바로 양국과 양국민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우의때문』이라고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코스타리카에 대해 개괄적인설명을 한가운데 코스타리카는 국내적으로 평화와 인권존중을 실현하고 국제적으로는 이를 증진하기위해 헌신해왔다면서『평화와 人權은 인류가 바로 생존을 위한게임에서 지니고 있는 유일한 勝利카드』라고 말하고『코스타리카는오래동안 인권장을 위해 투쟁에 선도적역할을 담당하여온 人權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 美農務長官도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13일하오청와대에서존·R·블록美農務장관을접견하고환담했다。

# 고급公務員등 新規채용抑制

## 機構 肥大化방지方案마련

총무처는 정부조직 정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름에따라 축소된 機構나 人員이 다시 肥大化하는것을 막기위한 제도상의 조치를 마련중인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제도상의 조치와함께 총무처는 기구축소로 발생하는초과인원이 停年퇴직등 자연감소로 適正線에 이를때까지간부급 공무원의 신규채용을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조직의 再팽창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총무처는 현재 次官補의경우 上限線만을 규정하고있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구체적인 숫자를 못박고 대통령령수준에 머물러있는 各部處의 局에 대한 규정을 정부조직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앞으로 각부처가 職制改編을 시도할경우 총무처가 정부기구에 대해 행사할수있는 통제권을 최대한발휘、不要不急한 기구의 신설확대를 강력히 막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는 또 정부기구의재팽창을막는 한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조직및 定員에관한通則을 개정、조직과 定員을확고하게 못박을것도 추진중이다。

한편 총무처는 기구축소개편으로 4급이상에 초과人員이 발생케됨에따라 내년부터는 일부特殊職을 제외하곤 중급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할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5급(事務官)공무원의 公採숫자는 금년의 2백75명 (행정、외무、기술고시)보다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각부서의 조직정비試案에대한 조정작업을 마무리짓고 금명간 고위층의재가를얻는대로 법제처의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각부처

### 民正·民韓黨 협의체 推進

辛相佑 民韓黨사무총장은 13일 각정당간의 원활한 對話정치를 위해 民正 民韓黨간부들로 協議體를 구성할것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辛총장은 南惠祐총리의 초청으로 모이는 16일의정당간부모임에서 民正黨측의 의견을 타진하여 반응이 좋으면 협의체구성을 黨務會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民正黨의 李鍾찬 대변인은 이에 대해『지금까지 문제가 있을때마다 각黨간부들이 자주 만났고 앞으로도 필요에따라 언제든지 만날것이기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中共서 石油試錐작업

## 韓·日大陸棚 7鑛區 80km부근

【東京12日=聯合】최근 韓日양국이 공동개발구역 제7소광구의 석유 시굴작업을 재개한 일본 석유업계는 중공이 지난 봄부터 7소광구의 바로코앞에서 벌인 시굴작업의 저의와 결과에 대해 불안감과함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공이 시굴작업을 벌인이른바『龍井1號』는 7소광구에서 8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며 특히 작년에『니혼』일본 석유회사가 시굴한 곳과는 거의 붙어있다시피한곳이다。

더우기 일본측과 중공측의 시굴지점은 지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 석유업계에서는 중공측의 시굴처의가『7소광구에대한 권리유보용 시위』가 아니면 독자적인개발기술을 과시함으로써 그들과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하기위한 전단계라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정부도『논평할성질의것이 아니다』라고 태연한척하면서도 정확한 중공측시굴지점이 어딘지、그리고 採油테스트가 행해졌으며 그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비상한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新華社통신은 시굴결과 그곳에서『다층 고압의 천연가스와 석유모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中共측의 발표로는『시굴지점의 구조가 松遼평원과河北평원을 합친 넓이이며 유전지대에 발달하는 암석이 상당히 크다』고 돼 있어 일본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사결과가 어쩌면『대규모 유전발견의 전망이 밝다』는 뜻인지도 모른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社會漫評

이젠 「누워 떡먹기」가 되었읍니다…

# 秋穀收買價 引上촉구

## 民韓 80kg 가마當 66,566원으로

民韓黨은 13일 올해 秋穀收買價를 가마당(80kg)지난해의 4만5천7백50원 보다 45·5%를 인상한 6만6천5백66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농가소비량을 제외하고 농민이 원하는 全量을 現金收買할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民韓黨은 이날상오 당무회의에서 올秋穀收買價에 대한 黨論을 이같이 정하고 이는 지난10일현재 中品쌀한가마 소비자가격 7만원에비해서는 95·1%에 지나지않으며 금년7월 中品의 농가판매가격 6만4천1백28원에 비해 103·8%의 비율로 작년의 103·1%와 비슷한것』이라고 주장했다。

# 朴動資解任결의案

## 국민黨서提出키로

### 低質炭생산 引責

국민당은 低質연탄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이번정기국회에서 朴奉煥동력자원부장관 解任결의안을 제출할방침이다。

李東鎭 국민당총무는 13일『低質연탄과 관련된 피해자는 국민대다수이기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면서『관련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독층은 책임이있는 장관도 책임을지고 물러나야한다고 보기때문』이라고 해임결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저질연탄 문제와 관련、國政조사권 發動에관한 문제는 民韓黨측과 협의、차후에 결정하겠다』고말했다。

# 노벨平和賞 바웬사有力

【바르샤바13日UPI聯合】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81년도의 유력한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로 꼽히고있으며 14일중에 수상자가 공식발표된다고 믿을만한 소식통이 전했다。

# 新聞協창립 19주년紀念式

## 李文公"言論은 國益優先姿勢로"

한국신문협회(회장 文昌甲)는 13일상오 창립19주년을맞아 언론계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문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李光杓 문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예상되는 어려움을 [illegible]하고 원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키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단합하는데 [illegible] 언론이 [illegible] 담당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나위가없다』고강조하고『새시대에있어 우리언론은 언론자유의 신장과함께 사회적책임성의 바탕위에서 國益증진에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해줄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地平線

맑은 가을하늘아래 젊음과 힘이 약동하는 전국체전을 보노라면 몸과마음이 젊어진다。이화학당에 농구나 정구가 들어온해가 1912~13년。공기、오뜨말、술레잡기가고작이던 여학생들이 이젠 트레이닝복을 입고 남자못지않게 발랄한 젊음을 당당히겨루고있으니 70년동안에 많이도 변했다。 그러나 알고보면 체조、조깅、보디빌딩、헬스클럽、요가등 여러건강법이 유행하지만 不老長壽에의 바람으로 그스타일만 바뀌었지 사실은 모두가 예부터내려온 것들이다。▼동양에서는 수천년전부터 來世의 永遠보다 現世의 長壽—養生法을 믿는경향이 짙었다。不老長壽나 神仙術이 바로 그것이다。秦始皇이 不老不死의 仙藥을 구하려고 지금의 白頭山에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은 유명하거니와 漢武帝가 練丹術로 金丹을만들기위해 국가재정을 마구쓴 얘기도 널리알려져있다。하나 일반적인 건강법은 養生術—導引(柔軟體操)、胎息 (腹式呼吸)、辟穀(體內淨化) 服食(藥草療法)、房中(男女交合) 의 다섯가지가 있었다。導引은 인도의 요가체조와 비슷한 의료 체조로 말하자면 미용체조이기도 했다。 곰、호랑이、사슴、원숭이、새의 운동을 흉내내서 온몸의 관절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고르게하고 근육의 老化를 막았다。導引按摩는 요즘말하는 마사지와 같은 것인데 고대에도 있었던것이다。▼胎息은 胎兒처럼 숨쉬는것이다。사람은氣를 모아야 생명력을 기른다고믿었다。지금의腹式呼吸、深呼吸을말하며 丹田호흡법이다。丹田을 옛사람들이 중시한것은 첫째 丹田은大腦고、둘째丹田은 심장이며 세째 丹田은 배꼽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丹田호흡법은 지금도 武術의 기본자세로되어있고 현대체조에서도 응용된다。太極拳體操라고 導引과 胎息을 응용한 柔軟體操에선 丹田에 힘을주는것이 秘法인데 미국에서도 現代病에 좋다고 유행한다는 말이들린다。▼辟穀은 穀物을 물리친다는 뜻이다。斷食法 같은것으로 仙人은 이슬을 먹고산다는데서 나왔다。말하자면 짧은 기간의 단식、小食、節食이라고 할수있다。굶으면 뱃속의 蠹生蟲—옛날엔 三蟲을 죽일수 있다고 믿었다。服食은 松茸、枸杞등 약초를 먹는것을 말했다。또丹藥은 역대 황제들이즐겼으나 너무먹어 中毒死도 많았던 모양이다。房中은 새삼스레 소개할필요가 없지만 절제가필요하다。▼그까짓 고대의 건강법이야하고 무시하는이가 많겠지만 우주비행사、유명한 스포츠선수 가운데는 導引과 胎息의 활용자가 많다는 얘기이고보면 사람의 건강법은 보기만 달라졌지 실제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5
은 : 온스당 US 9.6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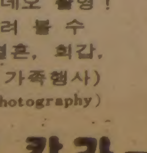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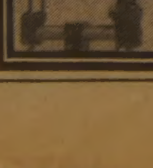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을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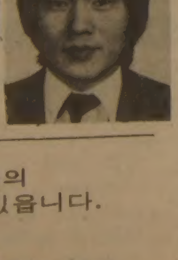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 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제5회 신춘문예 현상모집

이민생활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짙어짐은 모국어에의 애착과 그 전통문화및 예술에의 향수입니다.
이에 이민사회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코자 숨은 문재의 발굴을 꾀하여 다섯번째 현상문예 모집을 실시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시(시조포함) : 편수 제한없음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60매
수 필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 론 : 테마 자유 ·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희 곡 :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 : 동화(200자 30매 이내)
동시(동요·동화시 포함)편수제한 없음.
마 감 : 1981년 12월15일
제 출 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발 표 : 1982년 1월1일
시 상 : 각부분 당선작 1, 가작 1.
심 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반드시 이름(본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적을 것.(필명이나 가명은 무효)

주최
캐나다한국문인협회

INTERIORS
•GRAPHICS
FINE DESIGN

기능적이며 능률과 효과있는 영업장소를 설계하여 드리며, 아늑한 가정분위기를 꾸며드리는 실내 장식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요구에 충족하는 디자인과 공사를 자신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에델하우스와 코아그룹운영(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작품
오리지널·리 의상실 ■ 김 보석상 ■ 명동장 ■ 파라다이스 선장 ■ 오나시스외 35여 영업장소
동신교회 실내 ■ 서울공대 채플실내 ■ 단국대 도서관 휴게실
연대 커피하우스및 행사무대디자인 ■ 이대 문리대 휴게실및 메이데이 축제디자인 ■ 기타 부유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조 덕남 622•5328

# 金聖佑특파원 카이로서 第2信

# 「後繼者수업」6年6月

## 오늘 大統領에 취임할 무바라크의「얼굴」

【카이로13日=金聖佑特派員】이집트의 권력이양은 조용한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불의에 지도자를 잃은 나라가 새 대통령을 내세우는 과정에 아무 동요도 잡음도 없다.

국민투표를 하루앞둔 12일까지도 카이로거리는 전혀 지도자를 바꾸고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단일후보이기는 하지만 무바라크가 국민앞에 나와 정견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무바라크가 소속된 집권당인 국가민주당이 무바라크의 대통령 옹립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고 노조와 각대학총장회의등이 지지선언을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했을 정도다.

사다트의 고향인 메누피아등 몇몇지방에서는 무바라크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주지사들이 나와 연설하고 들어가는 열기없는 것이었다.

국민투표의 결과를 궁금하게 기다리는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집트국민들은 이나라가 이렇게 원활하게 권력이양을 하고있는데대해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카이로에서 발간되는 아랍지역에서 가장권위있는 반관영신문인 알·아람지의 모하메드·에이사편집부국장은『우리헌법84조 규정에따라 모든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고있다. 모든국민들은 사다트가 만든 제도가 그대로 작동하며 아무 고장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 크게 만족한다』고말했다.

카이로의 프레스센터에서 일하는 한직원은『우리는 대외적으로 평화를 원할뿐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평화를 원한다. 사다트는대외적인 평화만 이루어놓은것이아니라 대내적인 평화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었다』고 다시 한바탕 사다트예찬을 늘어놓았다.

사다트의 장례식날 TV중계에 나온 무바라크부통령의 시종 굳어진 표정에서 모든 이집트의 국민들은 새 대통령의 결의를 읽었다.

간디수상과 동남아의 많은 국가원수들과 회견을 한바있는에이사부국장은『무바라크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사다트생존때부터이집트국민들에게는 기정사실이었다. 사다트가 죽고나서 대통령으로 나선사람이 무바라크 하나뿐인것은 아무도 감히 자천한 사람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만큼 무바라크에게는 국민적총의가 모여져 있었다. 무바라크는 이집트국민들로서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후계자다』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무바라크는 부통령으로 임명된 1975년4월이후 6년 반동안 늘 사다트의 곁에 있었다. 대외적, 또는 대내적으로 사다트는 모든 회합에 반드시 무바라크를 동반했다. 크고작은 정책결정때는 그와 꼭 상의를 했다.

『무바라크가 사다트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언한것도 사다트의 모든정책결정에 자신이 참여해서 하나도 바꿀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에이사씨는 덧붙였다.

사다트와 무바라크는 대통령과 부통령사이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사다트가 죽은 직후 무바라크는『사다트는 나의 스승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매년 아마단이라부르는 회교도의 단식월이되면 사다트는자기고향에 내려가고 그동안무바라크가 권한을 대행했다. 사다트의 잦은 외국여행기간에도 무바라크가 나라를 지켰다. 사다트가 국내에있을 때라도 항상 곁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무바라크의 얼굴은 국민들에게 낯익다.

사다트는 무바라크를 자주 외국에 내보냈다. 아랍, 유럽여러나라와 미국등을 두루 돌아다녔다. 사다트가 죽기 며칠전에도 미국을 다녀왔다.

알제리와 모로코의 사하라분쟁때 사다트는 무바라크를 중재자로 파견해 양국간의 유혈을 방지했다. 이때 사다트는 무바라크도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집트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무바라크가 10월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1973년 전쟁당시는 공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때였고 공군사령관이던 무바라크는 첫입격으로 전쟁의 대세를 흔들어놓아 영웅이 되었다.

『10월전쟁은 이집트의 이정표 같은 것이었고 사다트는 10월전쟁의 세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다트가 무바라크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무바라크가 10월전쟁세대의 대표자였기때문이다』라고 에이사씨는 설명했다.

TV에나온 무바라크의 얼굴은 단단한 스포츠맨의 인상이었다. 이집트국민들은 한결같이『무바라크는 냉철하고 야무지고 규율적인 사람』이라고 평했다.

스쾃시정구의 선수이기도 해서 쾌활한 일면도 있다고들말한다. 1972년 무바라크가 공군사령관일때 對空전차부대에 소위로근무했다는 한 택시운전사는『그때 무바라크는 점잖고 원칙을 잘지키고 진실된 사람으로 평판이 나있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전날 알·아람지는무바라크를 부각시키면서『무바라크의 가장중요한 개성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무바라크가 공사생도시절부터 자제력이 강하고 지성적이면서 끊임없이 일을하는 성격이었고 공군사령관이되고나서도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그열성은 변하지않고있었다고 새지도자를 소개했다.

무바라크는 시간을 철저히지키는 사람이며 잘못을저지르면 그냥지나치지않고 편법을 써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소문나있다.

무바라크가 사다트의 정책을계승하겠다고 선언한것에 대해 국민들은 그의 성실성을 미루어서라도 그가 얼마만큼 변심하리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않고있다.

『사다트가 6년반이나 무바라크를 데리고있었던것은 그의 성실성때문이었다. 사다트가 믿었던 사람이면 우리도 믿을수있단』는 것이 13일의 국민투표에 나선 이집트국민들의 생각이다.

다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통치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올것이냐에 관심들이 쏠려있다. 무바라크자신은 어떤 외국기자와의 회견에서『목적이 뚜렷하면 스타일은 아무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사다트가 세워논 원칙이있다. 이원칙을 따라갈 뿐이다』라고말했다.

이집트국민들은 아무도 그의새 스타일을 예견하지못하고있다.

알·아람지는 사다트가 피격당하던날 사열대에서 불발이 된 두개의 수류탄이 마저 터졌으면 후계자마저 잃을 뻔했다고, 이집트를 구해준 알라신에게 감사했다.

알라신의 가호로 이집트는 평온속에 정권이 후계자에게 넘어가고있다. 이집트가 혼란을 면한것은사다트가 후계자를 키웠기때문이다. 후계자를 키웠기때문에 사다트는 그의 정책을 아무탈없이 계승시킬수가 있다.

그것이 사다트의 영생의 길이었다.

### 誠實·냉철한 性稟

### 사다트와 함께 모든政策결정 참여

### 국민들의 확고한 支持로 混亂막아

### "方向뚜렷…政治스타일은 無關"公言

◇13일 실시되는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의 이집트대통령단일후보지명에대한 국민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 무바라크부통령의 사진아래에는『모바라크의 이집트대통령지명을 동의하는가』고 묻고있다. 찬성할경우 오른쪽의 흰동그라미속에 기표한다. 【카이로12日AP聯合=聯合】

# 사다트죽음·아라파트 訪日로

# 「PLO自決權」논쟁高潮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기무라·도시오(木村俊夫)前외상이 이끄는 日·팔레스타인우호협회의 초청으로 2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12일하오 리비아의 보잉707전세기편으로 일본에 온 아라파트 PLO의장은 6천여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계망을 편 가운데 2일간의 일정을 보내고 있다.

아라파트는 13일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난 후 14일에는 스즈끼·젠꼬수상과 최초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마이니찌(每日)신문은 이날 일본정부가 아라파트의 訪日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원조제공방침을 굳히고 팔레스타인의 생활개선과 기술자 양성을 위해 요르단및 시리아를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라파트 PLO의장은 13일 NHK·TV와의 회견에서 사우디의 황태자가 제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골자로한 8개항의중동평화안에 대해「현실적인 것」이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北京과 平壤을 방문하고 12일 일본에 온 아라파트의장은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회피하고『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하는것이 중동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아라파트 PLO의장과 NHK·TV와의 일문일답.

—사우디의 황태자가 제의한 중동평화안에 대해.

▲현실적인 것이다. 특히 PLO가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이며 팔레스타인이예루살렘에서 국가건설과 자결권을 갖도록 인정한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호승인에 대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人은 희생자다. 팔레스타인人의 60%는 이스라엘의 침공에의해 난민이됐고 40%는 조국의 독립을위해 생사의기로에 선 테러리스트가 됐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먼저인정해야 할것이다.

—PLO가 소련의 영향을 많이받고있지 않는가.

▲PLO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독립과 민족운동을 위해 76년유엔 결의에의한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위해 투쟁하고있다.

—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인정한다면 미국은 PLO와 중동평화에 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카터 前미국 대통령등이 같은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런 의견의 제시자는 대부분 미국의 전직고관들이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는 PLO의 존재를 무시했으나 그만둔뒤에는 PLO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됐다. 문제는현직에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 PLO의 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 중동문제는 해결할수없다는 현실적인 감각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생존권을인정해야 할것이다.

## 아라파트"사우디의 中東평화案환영"

## 카터등 協商촉구、레이건"반대"固守

【워싱턴12日UPI聯合=聯合】로널드·레이건美 대통령은 12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먼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한 美國은 PLO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했던 리처드·닉슨 지미·카터전임 대통령이『美國은 中東평화를 굳건히 하기위해 언젠가는 PLO와협상해야 한다』면서 美國의 PLO승인을 촉구한데 대해『거기에는 한가지 조건이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美國이 PLO와의 회담을 단호히 거부하지는 않아 왔으나 그보다는 국가로서 존속할수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PLO가 인정하지 않는한 美國의 對PLO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더욱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11日UPI=聯合】제럴드·포드, 지미·카터등 前美대통령은 10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역할이 수락되지않는한 中東에서의 어떠한 외교적 진전도 이뤄지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은 美國의 對PLO승인을 지지한다고말했다.

美정부의 조문사절로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장례식에참석했던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귀국하는도중 機上 회견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과거 현직 在任時때와는 달리 美國의 對PLO승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美國의 PLO승인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 전용기에 동승한 美외교관들은 당황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카터 前 대통령은 美國의 對PLO접촉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PLO와 이스라엘生存權의 동시승인이 바람직한것 같다고 말했다.

【예루살렘12日UPI=聯合】이스라엘관리들은 12일 제럴드·포드, 지미·카터 두전직 美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의 상호교차승인과 美國의 PLO승인을 촉구한데 대해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암살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그같은 제의를 한것은『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PLO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존재자체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PLO의 편에서서 중재를 하려 한다면 그누가 됐건 헛수고를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간 日本을 공식방문중인 아라파트PLO의장(가운데)은 12일밤 東京의 뉴오따니호텔 리셉션에서 日·팔레스타인의원친선연맹 宇都宮德馬의원과 축배를 들고있다. 【東京12日AP聯合=聯合】

# 이집트將校 18명解任

## "宗教的 狂信경향"이유

【카이로12日AP·UPI=聯合】이집트정부는 지난6일의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암살에 따른 군부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종교적 광신경향」을 보인 軍장교 18명을 해임, 예편시켰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집트정부는 이와동시에 앞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선동자들을 사다트대통령암살직후 발표된 긴급조치에의해 현장에서 사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압델·할림·가잘라 이집트국방상은 사다트 대통령암살범들을 군법회의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거쳐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政府 성명은 해임된 軍장교 18명가운데는 사다트대통령암살주범 할레드·엘·이슬람불리중위가 포함돼 있으나 주범외에 나머지 17명의 장교가 암살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거나 구금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슬아슬한 오토바이妙技 美國의 허드슨이라는 모터사이클 곡예사가 멀던의 블렉 워터 강위의 철거진철로(약24m) 위를 오토바이로 달려 아슬아슬하게 건너는모습. 【멀던12日AP=聯合】

### 아슈트市 무력亂動 혐의5명 寫眞공개

【카이로12日AP=聯合】이집트경찰은 12일 안와르·사다트 前 대통령암살사건에이어 발생한 아슈트시 무력난동사건과 관련 이사건의 선동혐의를 받고있는 회교정통주의자 5명의 체포에 협조해 주도록 전국민에 호소했다.

이집트경찰은 이날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으로 보이는 혐의자 5명의 이름과 사진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TV를 통해 반복 방영했다.

# 對埃수단 武器공급 加速化

## 美、사다트以後 中東지역安定위해

【워싱턴·카이로12日UPI·聯合=聯合】미국은 중동평화와의 주축이었던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死後 중동지역의 안전보장이 위협받을경우 역내국가에 대한 직접원조 또는 美군사력증강으로 신속히 대처할것이라고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이 12일 밝혔다. 美國은 리비아등 강경아랍국의 主공격대상이 되고있는 이집트와 수단에 대해 전폭기와 탱크등 최신무기를 조속히 언도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美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사다트 대통령장례식에 참석한후 이날 상오 워싱턴에 귀환한 헤이그장관은 수단에대한 무기공급및 이집트와의 합동군사훈련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로『미국의 맹방은결코 위태롭지않다』는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레이건"美軍참전意圖는없다"

【워싱턴12日UPI=聯合】레이건 미 대통령은 12일 이집트와 수단에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가속화와 관련, 미국이 미군을 전투에 파견할 의도는 전혀없다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주말휴가를 마치고 이날 백악관에 돌아온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집트와 수단에대한 무기공급의 가속화는 리비아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처하기위해 요청된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미국인을 전투에 참전시킬의사는 전혀없음을 약속한다고말했다.

### 埃서 대규모 合同訓練등

### 美、中東國들과 협력強化

【워싱턴·카이로12日AP=聯合】미국은 이집트와 수단에대한 군사원조의 가속화를 약속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B52중폭격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이집트에서 실시하기로계획하는등 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死後 중동의 미우방들과의 협력을강화하기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기시작했다.

헤이그장관은 오는11월 미국, 이집트및 일부 페르시아灣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될것이라고 말했으며 관리들은 처음으로 B52중폭격기들이 미국본토에서 무착륙으로 이집트의기동훈련에 참가할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이밖의 中東사태변화의 하나로 지난1977년 이집트의 對이스라엘 평화회담에 항의하여 이집트와의 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오는2~3주내에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지모른다고 밝혔다.

### 海外토픽

**中國人 美大陸발견**

★美海洋考古學者들 주장

크리스토포루스·콜롬부스가 1492년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기 2천년전 중국인들이 바다를 건너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했을지도 모른다고 2명의 美해양고고학자들이 12일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제임즈·R·모리아리티 3세교수와 사설회사에 근무하는 래리·J·피어슨교수는 캘리포니아 남부해안에서 6년전발견된 11개의 대형 돌들을 연구한 결과 이 돌들이 확실히 5백년이상전에 난파된 중국선박의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AP】

**回教학생 수염깎아**

★사다트死後검거피하려고

이집트당국이 지난9월 회교도자및 과격파들을 검거하면서부터 남의눈에 띄기를 꺼려해온 카이로대학 회교정통파 학생들은 최근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이 피살되자 아예 회교도전통스타일인 수염을 깎고 학교에 다니기시작했다고.

문학부와 법·상계열학부가 소속돼있는 기타 캠퍼스에는 현재 회교식 수염을 기른 남학생이 한명도 없다는데 수염을 깎기 싫은 학생들은 등교를 그만두고 집에 처박혀있다는것.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주로 구식복장을 즐겨입던 여학생들은 오히려 회교식 전통의상을 입는경향이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발밑까지 내려오는 긴치마에 두건까지 쓰고 등교하고있다고. 【카이로=AP】

## 波勞組、정부와 食糧협상

## 22일까지 罷業중지 촉구

【바르샤바12日AP聯合=聯合】식량부족에대한 폴란드국민들의불만이 또다시 파업위협으로 표출되고 있는가운데 12일 폴란드자유노조의 새11人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전국대회폐막이래 처음으로 회합을 갖고 식량난을둘러싼 전국적인 경고파업위협을 해소할 정부측과의 협상시한을 오는22일로 결정, 전국의 노조지부에대해 그때까지 모든 항의행동을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폴란드공산당은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던 중앙위회의를 아무런 설명없이이번 주말까지 연기할것으로보인다고 黨관리들이 밝혔다.

자유노조집행위원들은 정부측과의 식량협상을 이번주말 또는 내주초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할경우 오는22일경고파업을벌일것인지의여부를 결정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 카터、阿洲쿠바軍 철수등 비밀協商벌여

【마이애미12日UPI=聯合】카터前미행정부는 美·쿠바 관계개선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쿠바군철수를 목표로 2년반이상 쿠바측과 비밀협상을 벌였었다고 마이애미·헤럴드紙가 12일 보도했다.

헤럴드지는 전현직정부관리들과의 인터뷰를토대로 카터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카스트로정권을 무시했으나 막후에서는 미국·쿠바·멕시코등지에서 양국간 비밀협상을 추진했다고전했다.

### 메아리

## 기상 주기

여자의 마음과 가을 날씨는 미리 짐작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올 가을은 그런대로 갠 날이 이어지고 궂은 날이 드물어 추수를 위한 큰 생색이되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기상전망상황으로는 지구의 한랭화와 건조화가 진행되는 주기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말이다.

5년 또는 10년 앞의 기상을 내다보는 예보는 지구의 장기적인 기후변동에「태양활동의 성쇠」와「지축의 흔들림」「혹성인력의 변화」등 세가지의 주기를 두고 계산을 해서 예측한다.

이를테면 태양의 활동에는 10년의 단주기(短週期)와 1백년의 장주기가 있어서 지금은 두쪽이 다 감쇠기에 해당하므로 지구는 1백년만에 한번인 한랭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축의 흔들림도 지구가 자석의 방향에서 약30도 기우뚱해서 흔들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6년주기이다. 이로하여 지구는 작년부터 동반구쪽으로 기울고 따라서 북극의 찬기운이 아시아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었다.

그에보태 혹성인력의 변화는 1백79년주기로서 내년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게된다.

그래서 인력(引力)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조류나 대기의 흐름에도 변화가 일게되어 북에서는 냉해가 들고 바닷물은 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장기예보의 전망과는 달리 우리는 5월초의 못자리 냉해를 비롯하여 6월들어 겪었던 혹심한 가뭄과 이에 뒤따른 병충해의 만연에 시달려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벼이삭이 패면서 호우가 몰아닥쳤으며 그것도모자라 태풍 애그니스의 강타가 있었으나 벼농사는10a당 6백kg은 거뜬하다는 대풍이다.

곡창인 호남평야는 말할 것 없고 작년에 모진흉년이 들었던 영남지방에서는 2년농사를 당년에 지었다고 좋아할 정도라니 소문만으로도 배가부를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풍년이 들었다 하여 결코 흥청거릴 처지는 아니다. 기상전문가가 말하는 장기예보의 경계신호도 신호려니와 풍년의 타작마당에서 흉년을 생각하는 조상전래의 지혜로 보나 더 근검절약할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 外信알쏭따

◆臺灣省主席등 本土초청=중공 福建省의 한 고위관리는 11일 본토와 대만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林洋港대만성주석과 국민당지도자, 대북시당국자들이 福建省과 福州市를 방문해주도록 공식초청했다. 【東京=聯】

### 韓美 農産物貸金 6억弗供與

韓·美양국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에서 82회계연도 美商品信用公社의 농산물 자금(GSM102) 도입규모를 확정짓는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美信部경제기획원經協차관보와 A·T·트레이시 美농무성해외농업처 副處長간에 교환된 이각서의 내용은 原綿3억달러、소맥1억3천만달러、사료용곡물1억달러、大豆3천만달러、기타 예비비2천6백만달러、牛脂4백만달러등 모두5억9천만달러를 공여키로한것인데 도입조건은 상환기간이 原綿만36개월이고 여타는 12개월이며 금리는 연리보플러스 0.5%또는 플라임레이트 플러스 0.25%이내이다.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고려식품 옆)
☎: 533-7966　김영철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거구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선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보광한약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439-6717　김남집

# 在日同胞유학생間諜 검거

## 포섭된 大學生·戰警등 넷 拘束

국군보안사령부는 13일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가장, 학원가에 침투해 대학생데모를 선동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하는등 간첩활동을 해온 재일동포2세 金泰洪(25·延大경제과4년)과 金에 동조, 학원가의 좌경의식화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맡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禹大亨(24·延大경제과4년) 朴星又(21·同) 李兌洙(22·모市警전경대원) 李起鉉(24·무직·○○사령부사병제대)등 5명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혐의자 12명을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보안사령부는 이들로부터 金日成주체사상·고려연방제에 관한 金日成연설문등 불온서적 2백여점과 북괴방송 수신용단파라디오3대, 공작금 일화 13만엔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으며 5명의 구속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훈계방면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泰洪 ◇禹大亨 ◇朴星又 ◇李起鉉 ◇李兌洙

### 학원가 左傾운동관련 12명 連行조사

보안사발표에 의하면 주범 金泰洪은 일본東神戶 소재 赤塚山고교에 다닐때 북괴 대남지도원 나까무라(中村·62)에게 포섭돼 유학생을가장, 78년3월 서울에와 延世大에 입교한후 4년5개월동안 간첩활동을 해왔는데 방학을이용 平壤에 들어가 20일간의 밀봉교육을 받았고 북괴의공작금으로 日貨 1백62만엔(4백80만여원)을 수령했으며 12차례에걸쳐 일본에드나들며 활동상황을 보고해왔다는것이다.

5명의 구속자와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金泰洪(국가보안법위반)=조총련 兵庫縣 川西지부위원장이던 맏형 金振洪(45)과 62년 북송되어 황해도 沙里院에서 농업기사로있는 둘째형 金庚洪(42)의 영향하에 성장, 74년7월 조총련산하 「조선청년동맹」兵庫縣본부 정치부장 李창렬(35)에 포섭됐다. 李의 지령에 따라 재일거류민단 兵庫縣본부 한국청년회에 위장침투, 와해활동을 하다가 76년7월 북괴 재일공작지도원 나까무라에 인계돼 지령을 받고 입국, 延大에 유학해왔다. 81년1월28일~2월21일까지 平壤에 들어가 간첩훈련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禹大亨(국가보안법위반)=마르크스경제학등 판매금지된 공산주의 관련서적을탐독, 공산체제를 동경하며 반정부데모에 가담했으며 金泰洪한테서 많은 불온서적과 북괴방송수신용라디오1대를 받았다.

▲朴星又(국가보안법위반)=79년12월부터 金泰洪과 사귀면서 북괴 우월성 선전과 반정부 교양을 받고 동조하는 활동을했다.

▲李起鉉(군사기밀보호법위반)=고교동창생 소개로 79년4월 육군에 입대, ○○사령부 비서실 당번병으로근무하면서 金泰洪의 친구가 되어오던중 부대의 위치·편성·임무·기능·훈련상황과 10·26이후 군내실태등 군사기밀을 알려주었다.

▲李兌洙(군사기밀보호법위반)=金泰洪에게서 북괴 우월성 교양을받고 동조했으며 81년3월 전투경찰에 입대한후 전경대의 모집방법, 규모·훈련내용·임무·기능등 기밀을 누설했다.

◇간첩 金泰洪일당으로부터 압수한증거품.

**해설**

### 北傀, 신분노출위험적은 잇점노려 迂廻방법으로 共産思想교육·유도

이번 학원침투 간첩사건은 70년대 후반부터 학원가에 물의를 일으켜온 소위「의식화운동」의 배후에도 북괴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북괴는 모국실정을 잘알지 못하는 재일동포학생들을 소위「조선문화연구회」나 조총련산하 학생회등 좌경조직에 끌어들여 국내에 위장,잠입케한다음 학원가를 선동하고 좌경화의식을 고취하는방법을 써왔음이 이번사건으로 드러났다.

보안사령부는 주범 金泰洪이 북괴의 일방적 교양선전에 넘어가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사업에 적극참여한다는 환상으로 간첩이 되었다고밝히고있다.

북한괴뢰가 金을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으로 만들어 합법 활동을 할수있는 잇점을 노린것이라고 군수사당국은 분석하고있다. 金은 북괴에서 보낸 불온서적을 일본에서수집한 자료인것처럼 위장해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하는한편 동료학생들의 호기심을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상교육을 유도했는데 대부분 金에동조한 학생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경계를 하지않고 金의 간첩활동을 도와준 결과를 가져왔다.

보안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민중문화사」란 간판을 내걸고 판매금지된 불온서적을 불법제작하거나 사들여 서울大 延大 高大등대학가에 팔아온 鄭進英씨(33)를 검거했는데 鄭씨는 간첩 金泰洪사건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그배후를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히고있다.

보안사령부는 이번 사건관련자가운데 구속되지않은 12명중에는 鄭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밝히고 이들의가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훈계방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申鉉鈺기자】

---

##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㊲

〈題字·尹敦暎〉

### 左翼의 國會浸透

# 盧鎰煥이 南勞黨과 접선 프락치構成
## 外軍撤收등 획책하다 議員15명被逮

나는 처음 韓國民主黨의 간판을 업고 제헌국회에 들어갔으나 韓民黨의 중심체질과는 맞질않았다. 韓民黨은 처음 29명에 불과했으나 그들의 특유한 정치활동으로 그 수를 훨씬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政局에 바람을 일으켰다.

韓民黨은 당초 李承晩 대통령을 절대 지지했으나 組閣에 불만을 품고 점차 무소속 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의원들을 포섭하더니 60여명을헤아리는 院內세력으로 浮上했다.

그럴즈음 나는 무소속구락부와국민회 소속의원 50여명과 함께 以正會를 구성했다. 任永信, 鄭超甲, 陳憲植등이 그때의 멤버인데 李대통령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고 韓民黨을 견제하자는 것이 나의 의도였다. 그러다가 韓民黨이 少壯派의원들과 야합할 움직임이 일때쯤 나는 李仁, 任永信, 尹致昭등과 함께 大韓國民黨을 만들었다. 나와 李仁, 任永信이 최고위원이었는데 최고위원장으로서 내가 黨首격이었다. 대한국민당을 結黨한것은 내가 내무장관에서 물러나기 2개월전이었다. 대한국민당은 앞서 구성했던 以正會가 중심이 되었는데 나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院內전당의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기위한 布石으로 대한국민당 결당작업에 앞장섰던것이다.

그밖의 院內세력인 韓獨黨系의 同仁會, 少壯急進派의 成仁會, 族靑系의 靑丘會는 별도로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이들은 世稱 少壯派로 불렸다.

이상 세그룹이 내가 정부에서 국회로 복귀할 때쯤의 院內세력의 중심체였다. 院內에 복귀한지 2개월쯤된 49년2월, 韓民黨은 申翼熙, 池靑天系를 흡수해 民主國民黨으로 再編됐다. 民主國民黨은 院內 제1당으로 부상했다. 나에겐 적이 당황스런 일이었다.

국회에선 이런미묘한 세력再編작업이 벌어지면서 한편「反民特委」활동파급진 少壯派가 말썽을 일으키고있는「外軍撤退」문제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시끄러웠다.

49년1월중순께 李文源이 美軍철퇴요구를 내용으로한 對유엔韓委메시지를 국회본회의에서 낭독하려다 제지를당하는등 일대소란을 빚더니 2월초순엔 金秉會등 의원71人이 서명한「和平統一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끝에 부결됐다. 이것은 少壯派의원들에 의해 주동이 되었다.

그들은 院內에서 일이 어렵게 되자 院外로 무대를 옮기더니 3월엔 62명이 서명한「外軍撤退요구 對유엔韓委進言書」를 내한중에있는 유엔韓委에 냈다. 주동자는 金若水, 盧鎰煥, 李文源, 朴允源, 金秉會, 黃潤中, 金沃周등이었는데 開院때부터 사사건건 말썽을 불러일으킨 盧鎰煥이가 제1주모자인것으로 뒤에 밝혀졌다.

그들중 일부는 다시 몇달뒤 군사고문단설치반대에관한 서한을 유엔韓委의 하머사무국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앞서의 62명이름을 盜用해 국회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을 빚게됐다.

본회기閉會 바로 전날인 5월20일, 李文源, 崔泰奎, 李龜洙등 3명의 少壯派의원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됐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국회南勞黨프락치사건」의 序幕이었다.

이어 南勞黨員인 鄭載漢여인의 체포를 계기로 임시국회폐회직후에 盧鎰煥, 黃潤中, 金沃周등 6명의 의원이 체포되고 소장파의 주장격인 金若水부의장, 徐容吉등 15명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南勞黨중앙위원 李三赫(일명 河四福)등과 접선, 국회내에 프락치를 구성하고 外軍철퇴등 南勞黨의 對南정치공작대에 의한 7原則을실현하기위해 모의를 했다는게 그들에게 걸린 혐의였다. 조사결과는 이들의 활동사항이 체포된 南勞黨공작대원인 鄭載漢여인이 北에 보내려했던 암호문서에 기록돼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후 15회에 걸친 공판끝에 의원13명등「국회프락치사건」관련자15명은 이듬해 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토록순수했던 제헌국회는 이처럼 北의공작과 함께 院內 일부세력의 주도권장악욕심으로 어수선하기만했다.

국회는 부의장 金若水의 체포로 有故가된 부의장에 나를 포함 池大亨, 李仁, 郭尙勳등 7명이 부의장선거에서 경합했으나 1, 2차투표에서 過半이 안나 2차본회의때인 7월4일이었다. 2명의 決選투표에 내가 池大亨의원을 91對72표로 누르고 부의장이 됐다.

이 사건후로 국회안의 少壯派그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프락치사건에 얽혀 검속됐던 15명의 의원중 공판에 회부되지않은 金若水, 車庚模는 후에 사망했고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12명은 6·25때 越北 또는 拉北되어 대부분 生死不明상태이다.

이사건에 대해 국회일부에서는 확대했던 少壯派를 제압하기위한 정치적 造作劇이라고 비난했으나 그들이 北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음은 수사및 공판을 통해 뚜렷이 밝혀졌다.

49년 11월17일부터 6·25가 일어나기 3개월전인 50년3월15일까지 이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동안 국회분위기는 그야말로 우울하고 뒤숭숭하기만 했다.

◇1949년 국회에서 美軍철수결의안이 제출된데이어 南勞黨프락치사건이 터지는등어수선한政局氣流속에 美軍들은 한국에서 철수했다.

---

# 설악산등 19개 登山路폐쇄
## 산불예방위해 11월한달동안

【春川=聯合】강원도는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1월한달동안 도내45개 등산로중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등 19개 등산로를 폐쇄키로했다.

각지역별 폐쇄대상 등산로는 다음과 같다.

◇설악산(속초 인제 양양)=▲신흥사-토왕성폭포▲신흥사-마등령▲인제남교-12선녀탕-대승폭포-안산-장수대▲오색-대청봉▲외가평-백담사▲남설악도로코스(5색)▲갈천리-갈평정-하조대▲마산코스

◇오대산(평창)=▲오대산천약수터-동대산-진고개-노인봉

◇치악산(원성)=▲흥양리-비로봉계곡

◇두타산(삼척)=▲무릉계곡-두타산-청옥산▲무릉계곡-관음사▲대이리-한섬굴▲무릉계곡-사원리-면칠선명-청옥산

◇봉의산(춘천)=▲어린이놀이터-산정▲천주교-봉의산-산정

◇우두산(춘천)=▲충렬탑-산정▲고아원-산정

---

## 身元不明 20대女人 11層아파트 墜落死

13일 새벽0시30분께 서울江南區瑞草洞 삼호아파트10동11층 난간에서 신원을 알 수없는 23세 가량의 여자가 35m아래로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경비원 韓仁東씨(49)가발견경찰에신고했다.

韓씨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주위를 순찰하던중 갑자기 여자가 무엇인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같아 위를 쳐다보니 11층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것같이 보여 위로 올라가려는순간 여자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숨진여인의 신원을 조사중이다.

---

# 원두커피 濾過紙 發癌물질 확인 사용禁止

원두코피를 끓여 거를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고있는 여과지(코피·필터·페이퍼)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보사부는 전국각시도에 이 코피여과지를 모두 수거폐기하고 앞으로의 사용을 전면금지토록 13일 지시했다.

보사부당국은 지난9월24일 고려대 공대화학과 김강진교수팀이 시중다방에서 수거분석한 원두코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학술보고에따라 국내유일의 코피여과지 생산업체인 한국특수제지의것과, 3개수입상사가 외국에서 수입해온것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8가지종류의 코피여과지를 모두 수거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정의뢰한결과 8가지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최소 4.23PPM에서 6.63PPM까지 검출됐다는 것이다.

---

**표주박**

## 대낮 明洞서 30代 스트리킹 婦女子들 비명…警察주위에

○…12일 하오 4시15분께 서울 中區明洞에서 張在勳씨(32·노동·서울西大門區 홍제洞 2가)가 약5분간 스트리킹을 벌였다.

○…張씨는 이날 忠武路2街 明洞입구의 빌딩현관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진뒤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 한일관앞을 거쳐 코스모스 백화점앞까지 갔다가 다시방향을 바꿔 明洞성당앞까지 갔으며 뒤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는데 張씨가 스트리킹을 벌이자 놀란 부녀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

## 한국美術 5천년 제네바서 映畵上映

【제네바11日=聯合】기록영화「한국미술의 발견」이 11일 두번째로 제네바 예술역사박물관에서 1시간동안 상영됐다.

이 영화는 지난3년동안 미국에서 순회전시된「한국미술5천년展」에 출품된 한국미술 작품들을 담은것인데 이날 행사에는 외교관·언론인·제네바市 관리및 교포등 2백여명의 미술애호가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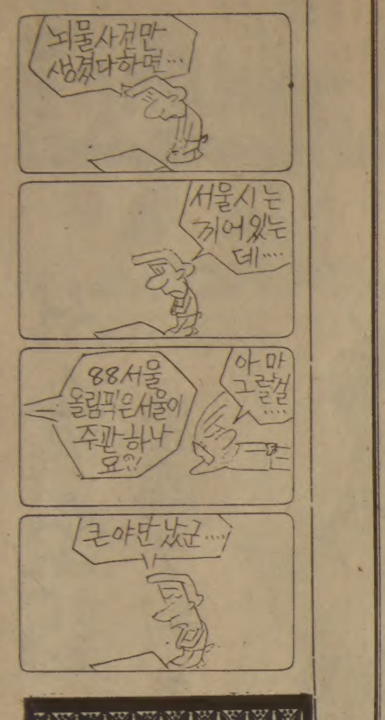
외국인 관람객들은 이영화를보고 한국의 전통예술·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외국언론인은 한국의예술과 문화가 중국문화의 아류가아닌 독자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으며 특히 한국예술이 지닌 섬세함과 우아함에 깊은감명을 받았다고말했다.

한국일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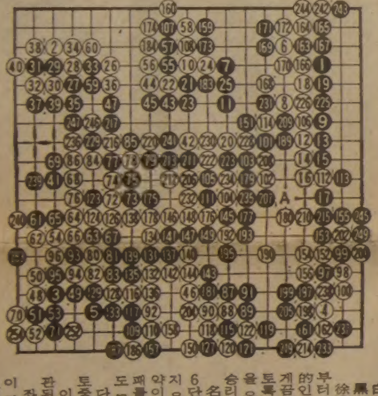
## 두꺼비 안의섭




---

## 제13기 名人战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總譜254手完 白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勝1敗〉
黑(6段)徐能旭〈0勝2敗〉

徐6단의 날카로운 공격력은 일찍부터 유명하다. 게다가 요즘은 全局的인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強柔를 섞게끔되었다는 일부기사간의 평인데 이 승리는 하나의 수훈이 아닐수 없다. 鄭4단의 토록 실력이 충실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徐6단만큼 정착하게된 徐6단은 그간 도전권을 딸수있는데까지 올라갔고도 있고해서 올해도 그활약이 크게 기대되었는데 이제 연속2패를하여 자칫 시드組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다만 앞으로 남은4국에서 어떤 권토중래를 보일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바둑은 한말로해서 격전으로 일관된 力作이다. 좌하귀에 붙인 白48이하의 전초전이 점차로 확대하여 白이 쌈지를뜨지 않으면안되었던 만큼 黑은 기세가 등등했다. 白86으로 살려주고 黑85로 따낸다음 黑101까지로 黑우세. 다시 하변을 115이하의 패로 공격하여 白의고전이 여전했는데 黑123의 패쓴이 과했고 126에 막지않은것이 조급했으며 181 이또 쓸데없는 큰어부스럼.

이로인해 白은 재생의 기회를 잡고 감연히 맞싸워 204까지 판세를 뒤집은 느낌이다. 끝으로 黑209로「A」에 차단할 기회마저 놓쳐서는 만사휴의. 중앙 白6이하는 멋진 마무리였다.

### 鄭4段, 殊勳의 快勝

125…115 130…93이음. 185…127 182…120 91…127 194…120 6…122 201…115 203…1 127 218…78 221…77 2 24…78 227…77 248…21 6 250…99이음 251…229

소비시간 白=3:16 黑=3:41 【一凡】

---

## 모두들이 외쳐도 生 〈226〉

### 돌개바람 불다 ㉗

趙善作 作 / 金光培 畵

이대로 잠들었으면,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나는 유치한 감상에 젖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유치한 감상에서 헤매이도록 버려두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에게 있어서 계속 불편을 토로해줄 테니까.

「해운대에서…호텔에서부터 뒤쫓아왔군」

그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일행 중에 누구 눈치챈 사람은 없는거요?」

역시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했다.

「그럴리지. 당신이 그렇게 서툰 추적자는 아닐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거야? 부산에서부터 줄곧 뒤를 쫓았는데…새벽에 천안역에 내려서는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천안역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어떻게 온양을 찾아왔다고 생각한건가?」

「당연하잖아요?」

비로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도고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렸을까하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그에게 서툰 추적자라는걸 보여주어서 내게 이로울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귀신이군. 그래서?」

「그래서라뇨?」

「여관은 어떻게 찾았는데 우리가 싸구려 여관에 들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여비를 아껴야할 때도 있잖아요?」

「죽겠구먼. 그래서 온양에 있는 여관들을 모조리 뒤지고 다닌 거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거리에 잠깐만 서 있으면 되는걸요. 여행자들이 걸어다닐만한 거리란 빤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냐. 느닷없이 해운대에서 철수하자고 제안한 것은 유창훈이라구. 이런 젊은이들은 돈도 떨어져가는 모양이고, 내가 살자고 할 입장은 아니잖소? 또 정직하게 말한다면 종희가 또 쳐들어 올일이 고민스럽기도 했고」

「아둘은 도망친건 도망친거잖아요?」

내가 비난하듯 말하자 그는 한수 없다는 듯이 수긍했다.

「그래. 종희가 올텐데 싶어 안스럽기도 했지만…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요? 프런트에서 일행이 온양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프런트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기랄. 정말 손바닥 위의 손오공이로군. 그래 이 여관 어딘가에 방을하나 얻어 놓은 거요?」

나는 다시대꾸하지않았다. 그는 좀 생각하는 듯한 눈치더니 말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서울안 가고 말요. 그날밤 내 방으로 또 처들어 오려고 다시 해운대 호텔로 온 거요?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랐겠군. 마치 내가 일행을 충동질해 서둘러 해운대를 떠난 것으로 생각했겠지?」

「아니에요. 그럼?」

「글쎄. 그렇게 오해할는지 모른다고 생각돼서 영 개운치 않았어. 밤이되면 틀림없이 호텔로 옮겨라고생각했거든. 그런데 저녁때가 다돼서 유창훈이…가만이 친구가 언제 돌아올 건가? 돌아올때가 된게아냐?」

그는 머리맡을 더듬어 성냥을 찾아그었고, 불빛에 손목시계의 숫자판을 비쳐보았다. 유감스럽게 돌아올 시간은 아직 멀었는지 그는 곧 종전에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GRAND OPENING SPECIALS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UPRIGHT PIANO

KL-702

⊛GRAND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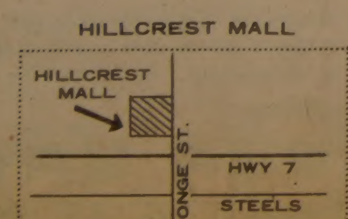
KG-1C
REG. $8,995
SPEC. $7,645

CE-7,
(OPEN WALNUT)
REG. $3,125
SPEC. $2,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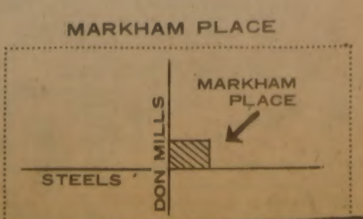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저희 KAWAI KEYBOARD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하나의 KEY BOARD 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대표 : 윤 호 섭
전화 : 883-9407, 881-8211
세일즈 매니저 : ALLEN DUMA

HILLCREST MALL




MARKHAM PLACE




KAWAI KEYBOARD CENTRE

# 陸上 흉작…大會新만 33

## 陸上·射擊·漕艇·劍道종목 경기 끝내

## 서울 金45 先頭 계속

### 忠南2위、全南은 3위로추격

제62회 전국체전은 13일메인·이벤트인 육상을 비롯、사격、조정、검도등 4개종목경기를 끝냄으로써 종반에 들어섰다。서울은 이날 현재 수영、육상、사격、조정등4개종목에서 총 10、875점을 얻어 선두에 나섰으며、忠南이 9、730점으로 2위、全南이 7、124점으로 3위를 마크하고 있다。

메달 레이스서도 서울은 금45、은19、동31로 전남에이어 계속 선두를 고수하고 있으며、忠南이 금29、은38、동34로 2위를、금23의 全南이 3위를 지키고있다。

이날 창동—의정부코스서 벌어진 마라톤서는 慶北의 林相圭가 2시간19분53초의 기록으로 골인、마라톤한국최고기록의 꿈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육상경기서는 33개의 대회신기록이 작성되었을 뿐 한국신기록은 한개도 나오지않아 지난해 (2개)에 비해서도 저조했다。

이날 사격 공기소총대학부 단체전서 仁川은 2、250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종목의 종전 한국기록은 2、242점이었다。

야구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금년도 전국대회 3개타이틀을 석권한 慶北高가 신예 浦項工에 5—3으로 이겨 결승전에 진출、4冠王을 바라보게 되었고 일반부준준결승전에서 경남선발은 강호 浦鐵(경북)에 예상외로 7—0、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축구고등부 준준결승전에서 安養工은 江陵農工과 맞서 열전끝에 0—0으로 비긴후 승부차기서 4—3으로 신승、어렵게 준결승에 올랐다。

배구 남일반부 준준결승서는 충북의 綜合化學이 서울의강호 韓電에 3—0으로완승했으며 남고부서 전북의白山高가 忠南商을 3—1로제압、각각준결승에 올랐다。

檀國大 체육관서벌어진 농구남고부 준준결승전에서는 全北師大附高와 仁川 松都高가 각각 승리를 거두었으며 럭비준준 결승전에서는 충남의 東亞工이 忠北高를 14—12로 물리쳤다。한편씨름 고등부 결승전서 전통의강호인 大邱 永信高가 仁川富平高를 5—2로 물리치고 우승을차지했다。

◇올시즌 첫 19分臺 기록

금년 시즌들어 처음2시간 19분대로 우승 테이프를 끊는 林相圭(경북·육군3사)。

# 마라톤 林相圭(慶北) 우승

## 2시간19분53초、大記錄기대 霧散

### 2位 金鶴洙 3位 鄭渭植

한국 최고기록의 꿈은 무산되었다。62회전국체전하이라이트 마라톤에서 30㎞지점까지 종전기록을 11초나앞서 달려 신기록의꿈에 부풀었던 신진林相圭(24·경북)는 35㎞지점에서부터 경쟁자를 앞고 외로운레이스를펼치며 급격히 페이스가떨어져 74년文興柱의 한국최고기록 2시간16분15초에 3분38초뒤진 2시간19분53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林相圭의 19분대기록은 최근 수년간 20분대밖에서허덕이던 국내마라톤으로서는 고무적인 기록이며 77년 마라톤에 뛰어든 林相圭자신이 6차례의 정규대회 출전에서 처음이룬 역작이다。28㎞지점까지 林과 나란히 역주하던 지난해 우승자 朴元根(경북)은 30㎞지점에서 뒤로처져 林의독주를 허용하고 기권했다。

2위는 忠南의 金鶴洙로 2시간21분23초。3위는 慶南의 鄭渭植으로 2시간23분44초였다。

이날 마라톤은 상오10시창동4거리를 출발、덕정검문소를 왕복하는 42.195㎞코스서 벌어졌는데 46명이출전、34명이 완주했다。이날 기온은 17도、습도69%、가벼운 동풍이불어 레이스에는좋은 날씨였다。

이날 레이스초반 朴元根、柳在聖(경남)林相圭가 선두그룹을이루며 패주를보여 반환점을 1시간6분57초로돌아 文興柱의 최고기록보다 24초나 앞서는 기록이었다。

◇마라톤기록

①林相圭(경북)=2시간19분53초
②金鶴洙(충남)=2시간21분23초
③鄭渭植(경남)=2시간23분44초
④柳文鍾(경북)=2시간24분11초
⑤崔文鎬(전북)=2시간24분49초
⑥金禎教(부산)=2시간25분11초

◇在日동포 氣焰 육상 여고투창서 41m98로 우승을 차지한 在日동포 李明美。

◇曲藝같이 바 넘어 육상 남일반 장대높이 뛰기서 慶南의 魯龍學이 아슬아슬하게 바를 넘어가고 있다。

## ◇제4일 전적

**육상** (대회신)
▲남고1천5백m=①정원식(전남)3분56초63 ②윤민근(전남)3분58초01 ③이교안(경기)3분58초15 ▲여일반2백m=①모명희(인천)24초85 ▲남일반1천6백m계주=①전남3분19초26 ②전북3분20초37 ▲남고 높이뛰기=①김익영(부산)2m04 ②김종일(충북)2m01 ▲남일반높이뛰기=①김용기(충북)2m12 ▲남고 투포환=①한민수(인천)16m42

**축구**
▲고등부 준준결승
경기안양공 0—0 강원강릉농
〈승부차기4—3〉
▲대학부준결승
경북영남 2—0 전북대
▲일반부준준결승
충남선발 0—0 부산대우
〈승부차기3—1〉

**야구**
▲고등부준결승
대구경북 5—3 경북포철공
▲일반부준결승

**럭비**
▲고등부 준준결승
부산남고 24—0 강원철원
충남동아공 14—12 충북고
▲동일반부
경남해사 11—7 경기경희대
충남대 28—0 부산대

**농구**
▲남고준준결승
전북사대부 61—59 부산동아
인천송도 101—85 경남마산
경기수원 69—59 부산동주
▲동여고부
충북대 63—62 충남대
전북대 71—59 경남경상대
▲동여일반
부산삼성 73—49 전북선발
경기한국화장 6—2 서울롯데
경남선발 7—0 경북포철

**하키**
▲남고준준결승
경기평택 1—1 전북김제
〈승부타3—2〉
충북제천 1—0 강원춘천
전남광주제일 1—1 충남아산
〈승부타4—3〉
▲동여고
충남온양 0—0 강원묵호
〈승부타4—1〉

**씨름**
▲고등부결승
대구영신 5—2 인천부평
▲동일반부결승
부산공동어시장 5—2 서울동부상고

**역도** (각종목 1위)
▲일반부52㎏급인상=이용한(서울)95㎏ ▲동용상=박용북(부산)117.5 ▲동총계=이용한(서울)210 ▲동56㎏급인상=이명수(인천)105 ▲동용상=이명수(인천)137.5 ▲동총계=이명수242.5 ▲동60㎏급이상=이용균(부산)112.5 ▲동용상=손문선(전남)140 ▲동총계=손문선247.5

**조정** (각종목 1위)
▲남고너클포=충남덕산4분01초F ▲동여고부=경기영복4분28초5 ▲동남일반=서울단국대3분53초8 ▲동여일반=경기경기대4분09초9

**배구**
▲남고준준결승
전북백산 3—1 충남상
▲동여고부
서울일신 3—0 충남태안
▲동남일반
충북종합화학 3—0 서울한전
충남통신교 3—0 경기금강
▲동여일반
강원현대 3—0 부산태광
경기도로공사 3—0 충북미도파
▲동남대부
충북청주 3—1 전남조선대
경기대 3—0 인천인하대

서울한국화장품 60—56 대구코오롱
▲동남일반
서울북지근무단 93—45 충북선발
대구삼성 96—63 전남선발

**핸드볼**
▲남고 준준결승
전남조대부 22—15 강원삼척
▲동여고
전북정읍 78—15 경남울산
▲동남일반
경기선발 15—14 대구경북대
▲동여일반
전북전주시청 35—4 경기한양대

**배드민턴**
▲남고준결승
전북전주농림 3—1 전남광주제일
충북충주공 3—0 대구고
▲동여고부
경남성지 3—0 서울풍문
전남동신 3—0 충북충주

대구효성 4—1 경남마산
▲동남일반
인천대우 4—1 재일동포
전남부안공업 4—2 충북섬유
▲동여일반
경기선발 4—0 인천선발
부산우성 4—0 경남선발

**테니스**
▲여일반준준결승
경남경상대 3—2 전북선발
▲동남고부
경기삼일실 3—1 전북전주
충북청주상 3—2 경남마산
▲동남대부
서울명지 3—0 전남대
경남울산공 3—1 경기아주대
▲동남일반
인천대우 3—1 경기선발
경북선발 3—0 강원선발
▲동 남대
서울한체대 3—0 인천체전
전남조선 3—0 경남경상

**탁구**
▲남고 준준결승
충남동아공 4—3 강원성수
▲동여고
충북대성 4—1 전남경신
경북근화 4—1 강원성수
▲동남대
강원대 4—2 전남대
▲동여대부
충북대 4—1 부산대

◇메달집계 <13일현재>

| | 금 | 은 | 동 |
|---|---|---|---|
| 서울 | 45 | 19 | 31 |
| 부산 | 17 | 20 | 21 |
| 대구 | 9 | 15 | 10 |
| 인천 | 13 | 19 | 7 |
| 경기 | 16 | 17 | 26 |
| 강원 | 10 | 12 | 21 |
| 충북 | 19 | 28 | 19 |
| 충남 | 29 | 38 | 34 |
| 전북 | 19 | 18 | 21 |
| 전남 | 23 | 26 | 28 |
| 경북 | 16 | 16 | 20 |
| 경남 | 23 | 14 | 24 |
| 제주 | 2 | 1 | 0 |
| 재일 | 1 | 1 | 0 |
| 재미 | 1 | 1 | 0 |

**연식정구**
▲남고준준결승
경남진주 3—1 대구농고
충북신흥 3—0 충남홍성
인천고 3—0 경북경주공
▲동여고부
충북음성 3—1 경기안성
전남나주 3—1 충남대전
▲동남대부
전남조선 3—1 서울산업대
▲동 준결승
경남경상대 3—2 대구경북대
▲동남일반
부산동삼유지 3—0 경북선발
전남선발 3—0 경남부자금융
▲동 여일반
서울농협 3—1 대구은행
전남호남전기 3—0 경기선발

## 加 IOC委員등 跆拳道경기 視察

캐나다의 IOC집행위원 버질리오·리·레온씨와 콜롬비아 IOC위원 글리오·디·포멜린씨가 13일하오 국기원을 방문、체전 태권도경기및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시범을참관했다。

## 靑銅器시대 土器등 발견

### 論山 야산밭用水路파다 農夫가

【論山=聯】충남論山郡彩雲面 深岩里14의1 야산밭에서 청동기시대것으로 보이는 회색무문토기(높이35㎝ 둘레20㎝)1점、칼(길이26㎝ 칼날18㎝ 손잡이8㎝)돌도끼(길이11㎝ 두께6㎝) 등 유물3점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유물들은 지난10일 하오3시께 李正吉씨(26·농업)가 밭에서 농업용수로 공사를 하다가 깊이60㎝의 땅속에서 발견、13일 論山군청공보실에 신고했다。

徐聲勳국립부여박물관장은 발굴된 유물에 대해『무문토기와 석기가 같이발굴된것으로보아 기원전 2~3세기의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우리 특별구좌에 저 새볼링·볼을 살만큼의 돈은 있지"

"보세요, 여보… 우리 특별구좌돈으로 이 새 옷을 샀어요"

"우리 아내가、내게이것이 필요없다는걸 확인해 줬다오。"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 流星의 賦 <207>

李炳注作 李友範畵

### 何處秋風至 ⑤

여립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이다。그의 아버지가 현감(縣監)이 되었다。아비를 따라간 여립은 자기목단으로 고을 일을 전부 처단했다。

아전들은 여립의 말만 들을 뿐 그 아비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했으니 현감은 [illegible]만 차고 있을 뿐이었다。여립이 하는짓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한번 여립의 비위를 거슬러 놓으면 어떤 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고 누가 말하더뇨。너희들의 명은 재아장중(在我掌中)이니라』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십오세 소년을 상대로 싸움하기도 거북해서 유유낙낙 여립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기도 했다。

장가는 김주(金[illegible]) 땅으로 들었다。일단 장가를 들어놓곤 처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쓰고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다。과거에 올라 벼슬을 했으나 워낙 성미이 괴팍해서 동료들과 맞지 않아 낙향하고 말았다。낙향의 가장 큰 이유는 율곡을 험담하다가 팔협(八俠)、특히 홍계남에게 면상을 잡혀 하마터면 죽을뻔한 바람에 겁을 먹은데 있었다。

낙향한 후 힘써 글을 읽었다。워낙 재주는 있었던터라 그 이름이 전라도 일대에 퍼졌다。사람들은 그를 죽도선생(竹島先生)이라고 불렀다。글을 배워도 그의 흉악하고 괴팍한 성질은 고쳐지질 않았다。여섯 형제인데 그들과 도저히 서로 용납이 안될만큼 사이가 나빴다。친척들과도 서로 원수지간처럼 되었다。

모진 놈 옆에 살면 벼락을 맞는다는 말이있다。여립이 사는 마을에 선비의 과부가 살고있었다。부자집일 뿐더러 정숙한 품행으로 얌전하게 살았다。물론재가할뜻은 없었다。

여립은 그과부에게 눈독을 들여 별의별 짓을 부려유혹하려했으나 바위에 대화살、즉 견암죽시(堅岩竹矢)의 꼴이었다。회유로서 안되니 다음은 위협을했다。자기의 뜻을 들리치면 살아남지못할 것이란 은근한 협박으로부터、귀신을 불러 목숨을 앗을것이란 강박에까지、갖가지 수단을 부렸다。

만책(萬策)이 아무런 효과도 없자 여립은 관가에 무고를 했다。그 과부가 집안에 강도를 불여 두어 마을 사람에게 행패를 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그내용은 일견 그럴싸했다。과부라는 약점을 노려 허(虛)를 노리는 정여립같은 자에 대비하기 위해 종 가운데 힘이 센 장사부부를 뽑아 항상 측근을 떠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청에선 그 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집 노비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었다。그 틈에 여립이 그 집에 침입해서 이욕고 과부를 겁탈하고 말았다。그리고는 그 과부를 첩으로 삼았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탓하지 못했던 것은 여립의 과격한 성격을 알고 후환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여립의 비행과 수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그것들이 대강 묵인된 것은 역시 그 흉악한 정도의 과격한 성격 때문이었다。오죽 했으면 그가 사는 고을의 사또들이 그를 두려워 했을까。사또들은 그 자신들의 비행이 탄로날까봐 겁을 내기도 했지만、법보다도 더 무서운 정여립의 해탁과 성격에 기가 질려버렸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사교댄스 강습**
기 간 : 10월22일(목)~12월17일 (매주 목요일 저녁)
지도교사 : 김 유 수(현 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ass교사)
초급반 : 7:30~9:00 부르스, 지루박, 왈츠, 도롯도
중급반 : 9:00~10:30 탱고, 차차, 폴카
고급반 : 9:00~10:30 각 댄스의 고급스텝
장소및 우편신청 : Y. KIM
TRINITY UNITED CHURCH
427 Bloor St. W. Toronto
(블루어×스파다이나)
문 의 처 : TEL : 922-8435 (9~5시)=Jean
366-4728 (저녁4시~9시, 주말)
회 비 : 싱글 $40, 커플 $70
※체계적인 교안과 실습을 통해 철저한 책임지도를 함.

DOMINION SMALLWARES
oct.19-Oct.31 ◆◆ 금주의 스페샬 ◆◆

| | | |
|---|---|---|
| Neilson w-o-p box chocolate Assort. 6 kinds | 12/159¢ | 11.40 (9.5¢ each) |
| Dare peg top bag candy | 12/139¢ | 9.45 |
| Moirs bag candy | 24/ 25¢ | 3.45 |
| Rogers soft granola bar | 40/ 35¢ | |
| Icy chocolate | 150/ 5¢ | 4.55 |
| Pal gum | 240/ 2¢ | 3.05 |
| Leaf face off ball gum | 48/ 10¢ | 3.05 |
| Leaf ball of fire gum | 48/ 5¢ | 1.45 |
| Lucky elephant pop corn | 48/ 5¢ | 8.99 |
| David & Sons sunflower seed in shell — | 24/ 10¢ | 1.58 |
| Gobstoper | 24/ 25¢ | 3.85 |
| Bazooka gum | 36/ 10¢ | 2.25 |
| Popping corn | 24/1 lb bag | 9.41 |
| Laura secord bars | 36/40¢ | 9.29 |
| Turtle& big turk bars | 36/ 40¢ | 9.29 |
| Neilson chunks reg&peanuts | 120/ 15¢ | 11.29 |
| Cigaro licorice red&black | 48/ 10¢ | 3.00 |

DOMINION SMALLWARES
이 기간동안 헬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789-7214(MR. 김)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부흥사경회
일 시 : 1981년10월22일~25일까지 저녁7시
강 사 : 정 승 일 목사 (뉴욕 한빛교회 시무)
장 소 :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Yonge & Hwy401)
전 화 : 221-1382, 496-2967
※써브웨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욕밀 정류장에 오시면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읍니다.
벧엘교회 당회장
목사 최 상 봉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카이로 平穩속 投票준비 한창

## 새指導者선출 앞두고 다시活氣

◇카이로의 무바라크와 헤이그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오른쪽)과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11일 회담을마친후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카이로11日AP電送=聯合】

## 무바라크、壓倒的支持 확실

## 내일就任式…「새이집트」出帆

### 本社 金聖佑특파원 카이로서 第1信

【카이로12日=金聖佑특파원】지도자를떠나보낸이집트는 다시 새출발을준비하기시작했다。6일의비보에서 10일의장례식까지지켜다란 공허감에 사로잡혔던 이집트국민들은 장례식이 끝나면서 기력을 되찾았다。정부는 새로운 지도자를 결정하기위한 준비를 모두끝냈다。

13일의 국민투표를위해 1천2백만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2만5천5백개의 투표함이 그새 만들어지고 각급학교등 공공건물의 투표장은 말끔히 정리됐다。투표결과를 즉각 알리기위해 내무성과 직결하는 통신사무소가 각 개표구에 개설되었다。

국민투표는 상오8시에서 하오5시까지 실시되는데 이미 집권당의 지명을 받아 차기 대통령으로 임명된 무바라크부통령이 압도적으로 인준받을것으로 보인다。국민투표는 「무바라크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데 귀하는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밝히는것으로 끝난다。

정부는 14일상오 개표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체없이 새 대통령으로 결정될것이 확실한 무바라크가 국회에나와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취임하는 스피드 있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무바라크는 이날중으로 각료들의 일괄사표를 받아 새내각구성에 들어간다。

공백기를 가급적줄여 연속성의 박자를 늦추지않는다는 노력이 눈에 띈다。조문왔던80여개국가의국가원수와 정부수반등 귀빈들을 다 떠나보낸 카이로거리는 일요일을 지낸 12일부터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다。

사다트가 피살된 6일은 10월전쟁기념일로 휴일이었고 7일부터11일까지 5일동안은 회교의 연휴였기 때문에 모든관공서가 문을닫은 이연휴동안 국상이 치러졌고 연휴가끝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 국민투표 實施땐 暴力사용을 警告

### 埃 亡命샤즐리

【베이루트10日UPI=聯合】리비아에 망명하여 반정부단체를 이끌고있는 사데딘·엘·샤즐리 前이집트 육군참모총장(56)은 10일 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무바라크부통령이 자신을 차기 이집트 대통령으로 내세울 경우 폭력에 호소하겠다고 경고했다。

### 埃內相저택 被襲

### 무장怪漢들 警備員사살

### 內相은 否認

【카이로11日AP=聯合】회교과격파로 보이는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수시간후 카이로교외에있는 나바위·이스마일 이집트內相 저택을 습격, 수미상의 경비원을 사살했으나 이스마일 내상은 무사했다고 이집트경찰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스마일내상은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곧 이를 부인했으나 경찰소식통들은 괴한들의 이스마일내상저택 공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카이로근교 모한데센지구에 위치한 이스마일내상의 저택이 사다트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10일하오 괴한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수미상의 경비원들이 죽거나 부상했으나 이스마일내상은 무사했다고 전했다。

## 埃·이 3週內 頂上회담

### 무바라크·베긴合意 埃外相 月末께 訪이

【예루살렘10日路透=聯合】이스라엘은 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후계자가될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은 앞으로 3주내 이집트·이스라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또 카말·하산·알리 이집트外相이 10월말경 이스라엘을 방문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故사다트 대통령의 장례식에참석하고 귀국한 베긴수상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집트의 중동평화노력이 계속될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으나 이같은 정상회담개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全斗煥 대통령이 공항에서있은 코스타리카의 카라소 대통령환영식에 참석, 카라소 대통령과함께 3軍의장대를 사열하고있다。

### 國會本會議 질문·답변

## 肥料회사 統廢合 검토중

## "換率引上說의 眞僞밝혀라"

국회는 12일상오 本會議를 열고 경제문제에대한 마지막 對정부질문을 벌였다。국회는 13일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날 本會議에서는 曺漢相(이상民正) 洪思德의원(民韓)이 질문에 나섰는데 曺의원은 『제5차 5개년 계획기간중 農水産부문의 투자비율은 너무 심한 不均衡을 보이고있다』고 농업진흥책을 추궁하면서 ▲糧特赤字와 二重穀價制문제 ▲公害로 인한赤潮의 피해와 그대책을 물었다。

洪思德의원(民韓)은 『잘사는사람들 20%의소득이 국민75%의 소득합계보다 더많다』면서 소득의재분배와 최저임금제실시등을 촉구하고 ▲농업생산비의利潤率보장 ▲방위예산의 삭감가능여부 ▲外債등에관해 물었다。

李在奐의원은 ▲『정부는과연 올림픽개최를 경제도약의 계기로이용 치밀한계획과 준비를 마련하고있느냐』고 추궁하고 ▲공식집계나 신고소득에 포함되지않은 소위地下經濟에대한 정책적접근에 대해 물었다。

그는또▲세입세출 기능을 종합하기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해외부실금융의 실상 ▲환율引上說의 眞僞와 환율정책 ▲저질탄의 실상과 대책을 따졌다。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통해 『88년 서울 올림픽개최에드는 비용은 아직 자세하게 나와있지않으나 이때문에 내년예산의 증감을 거론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5차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각계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작성된것이기 때문에 재조정할 생각이 없으며 올림픽경기도 5차경제계획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그범위안에서 치를계획』이라고 밝혔다。

5차 5개년계획기간중 연성장률 7·6%를 달성하기위해선 어느정도의 外債누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그는 『정부는 국제收支의 外債累增보다는 7·6%성장을 통해 국민복지와 경제발전을병행할것』이라고 밝혔다。

申부총리는 『금년 9월말까지의 물가동향을 보면 도매물가가 12·7%, 소비자물가가 14·2%로 정부의 예상수치보다 낮으며 이것은 原油價의 안정과 국민들의 협조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세계경기로 봐서 내년에도 原油價가 오를 전망이 없기때문에 국민들만 협조해주면 물가를12~14%선에서 잡을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5~6%정도로 예측했으나 현추세는 7%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肥料計定의 赤字해소방안으로 『비료회사의 경영합리화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료값을 50% 인상했지만 앞으로도 비료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李承潤재무장관은 換率인상說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부인했다。朴鳳煥동자부장관은 『12일 국제적인高金利추세에 의한 유전스利子(外上거래)와 환율의 인상으로 7·8%선의 油價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유가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등을 고려, 국민에미치는 영향을 極小化시키는방안을 택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국제油價가 인하되는 추세이지만 우리의경우는 인하요인이 없는 사우디에 60%를 의존하고있으며 오히려 사우디의 경우는 인상될전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朴장관은 또 5개정유회사의 缺損누적에 언급, 세계적인 高金利추세로인한 외상거래의 이자율의 인상등의 요인으로 81년상반기현재 결손누적액은 1천8억원이며 금년말엔 1천5백65억원이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코스타리카 大統領 來韓

### 全대통령과 頂上회담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카라소·오디오 대통령내외가 全斗煥 대통령내외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키위해 12일하오2시50분 NWA편으로 金浦공항着 來韓했다。

카라소 대통령내외는 이날 공항에서 全대통령과영부인 李順子여사로부터 따뜻한영접을 받은뒤 약8분동안 환영행사를 가졌으며 이어 숙소인 롯데호텔로직행, 訪韓첫날을 보냈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는 최초의 友邦元首인 카라소 대통령의 이번 訪韓에는 번드니하우스 캐나다外務宗教相내외, 하이메 보테이駐韓대사내외, 카라소 대통령의 次男,3男,5男 내외등 10명이 공식수행했다。

이날 공항환영행사에는 丁來赫국회의장, 南悳祐국무총리등 3府요인과 각료, 駐韓외교사절들이 참석했다。

카라소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全대통령과 한차례 頂上회담을 갖는등 일련의 회담을 통해 韓半島정세와南北대화,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中美국에대한 北傀의 침투봉쇄방안, 통상확대문제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카라소 대통령은 14일 離韓직전기자회견을 갖고 訪韓결과를 발표할것이다。카라소 대통령의 訪韓일정은 다음과같다。

▲13일=국립묘지 참배, 青瓦臺예방, 서울大서 명예박사학위수여, 국회연설, 板門店시찰, 靑瓦臺만찬참석。

▲14일=한국종합전시장시찰, 기자회견, 靑瓦臺告別예방。

## 動資部 석탄국장등 3명拘束

★기사11면

## 한국·자메이카 經濟·技術협력 기대

### 全대통령, 시아가首相과要談

全斗煥 대통령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자메이카의 에드워드·필립·조지·시아가 수상의 예방을받고 국제정세를 비롯한 東北亞정세와 양국간의 友好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요담했다。

全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이날요담에서 『경제성장은 외부침략 특히 공산침투와 침략을 억제하는데 가장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한국·자메이카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에 큰발전이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아가수상은 同感을 표시하면서 『자메이카 정부는 한국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全대통령은 어제 이날오찬에서 祝杯辭를 통해 『자유·평화·번영을 지향하는 자메이카국민의 念願과이상을 우리대한민국도 共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아가수상의訪韓이 양국友好협력관계를 보다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놓는 뜻깊은 계기가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아가수상은 이에대해 『자메이카는 최근 海底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회의개최지로 선정됐고 한국은 88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은 더욱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 社會漫評

치워도…치워도…

### 地平線

대학을 갓나온 풋나기의 가슴설레는 사랑을 그린 영화 「졸업」은 잊혀진지 오래지만 그 달콤한 노래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해주고있다。사이먼과 가펑클이 통기타와 함께 부르는 「스카보로·페어」, 「미세스·로빈슨」 그리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되어」로 60년대 세계 젊은이의 우상이었던 이들 듀엣이 지난 9월 9년만의 공연을 가졌었다。▼9월19일 뉴욕의 센트럴·파크에는 억수같은 비를 무릅쓰고 자그마치 40만명이 사이먼과 가펑클의 꿈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위해 몰려들었다。젊은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날밤부터 노숙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고한다。팝이라면 요란한 하드·록이나 디스코가 판치는 한국의 젊은이들 [illegible] 과는 약간 동떨어진듯한 얘기다。▼『내사랑 나에겐 오직 당신만이 있어/난 사랑만으로 살아/나의 첫사랑 당신이 있어 숨쉬고/당신의 발걸음이 내발걸음…』—부드러운 복고풍의 소프트·록 「끝없는 사랑」이 자그마치 9주째 미국에서 인기차트 1위를 차지하고있다。디트로이트 흑인빈민촌 출신의 아가씨 다이애너·로스가 인기 절정의 작곡가 라이오넬·리치와 함께 부른 「끝없는 사랑」。▼「끝없는 사랑」은 같은 이름의 영화주제가지만 그본바닥인 미국에서 영화는 그렇게 재미를 보지못했다는 것。그러나 주제가의 히트 덕분에 다이애너·로스는 「롤링·스톤」 차트에 가장 많이 오른 기록을 세웠다고한다。▼요란한 디스코가 아니면 하드·록이 판을 치고있는 한국의 풍토와는 다른 흐름을 지키고있는 빌·보드誌는 세계 팝음악의 본바닥에서 발행인인 리·지토는 『컨트리풍의 음악이 요즈음 인기를 끌고있다』고 「디스코 이후」의 미국을 말하고있다。지리한 디스코에 싫증이나면서도 그보다 템포가 빠른 「뉴·웨이브」에도 그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있다는것。詩처럼 아름다운 노랫말을 기타에 실어서 부르는 웨스턴이 인기라는 얘기다。▼사랑과 자연은 인간의 가슴속에 끝없는 생을 속삭이는 생명수와도 같다。사이먼과 가펑클이 40만의 열광 박수를 80년대초에까지 받는 것도 그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인기를 누리는 것도 이때문이다。스타가 없는 우리 사회의 쓸쓸하고 우울한 현실은 이런 「인간의 진실」을 목마르게 찾고있다。대중문화의 창조적인 발전을위해 무엇을 해야될까 다같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0
은 :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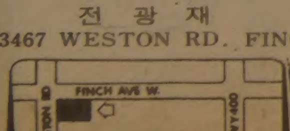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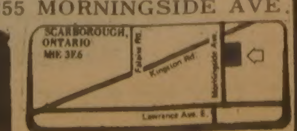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 美,中東수호 決意다져

## 헤이그 베긴·무바라크와 連鎖會談

◇吊問客으로 만난 헤이그와 베긴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이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장례식이끝난후 10일밤그의호텔 숙소에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과회담하고있다. 【카이로10日AP합동=聯合】

## 對이집트軍援도 強化

### "外勢견제…平和定着 계속追求"

【카이로 11日 UPI합동=聯合】故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헤이그美국방장관은 10일 베긴이스라엘수상및 아랍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진데이어 11일 새이집트지도자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이 中東문제해결을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다짐했다.

헤이그장관은 10일 베긴수상을 비롯하여 오만·리베리아·소말리아및 수단의 고위관리들과 연쇄적으로 접촉, 외세개입으로부터 中東과 아프리카를 수호할 필요성에대해 의견일치를 본후 11일 무바라크부통령과 회담하여 對이스라엘평화를 포함한 이집트外交政策이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않을 것이라는 이집트측의 다짐을 받아내는 한편 中東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적극적이고도 계속적인 노력을 확약했다.

헤이그장관은 무바라크부통령과 회담한후 12일상오1시5분(한국시간) 17人 美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귀임하기직전 가진기자회견을통해 그들이 ▲中東지역안보▲이집트·이스라엘평화과정의 계속이라는 두주요의제를놓고 집중협의했다고 밝히고 미국이 1978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구축된 중동평화과정에 계속참여하여 中東지역의 평화정착을위해 적극노력할 결의라고 밝혔다.

## 리비아, 또수단爆撃

【카이로12日UPI=聯合】리비아전투기 2대가 수단의 국경마을 2개소를 폭격, 부녀자 2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노약자·부녀자등 수명의 민간인이 부상했다고 수단외부성이 11일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날 이집트의 中東통신으로 보도된 성명에서 리비아가 지난8일 전투기2대를 동원, 회교순교절축제를벌이고있던수단의알티나및 타델레티마을을폭격했다고 밝혔다.

## 美·埃 합동軍事委 구성계획

【뉴욕11日AP=聯合】미국과 이집트는 현실화될지도모를 리비아의 수단침공과 蘇聯勢의 北아프리카침투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키위해 美·이집트합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할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美시사주간 뉴스위크는 19일字 최신판에서 그같이 보도하고 美·이집트양국이 현재 검토중인 對리비아 응징책중에는 이집트가 리비아를 침공하는것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다트暗殺배후 「히그라」

### 汎아랍 꿈꾸는 保守 단체

【카이로12日AP=聯合】사다트 대통령 암살의 주모자들로 알려진 회교과격단체「타크피르·왈·히그라」는 모든 현대이슬람 사회체제를부정하고 코란에 따른 엄격한 이슬람 헌법과 이슬람圈을총괄하여 지배하는 칼리프통치의 부활을 꿈꾸는 단체로 알려졌다.

「죄로부터의 보상」이란뜻을 가진 히그라團은 11세기 政敵살해를 자행했던 하사신派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사신이란말은 하사쉬(독초)를 사용하는 사람이란뜻으로 암살자를 의미하게 됐다.

타크피르·왈·히그라는 사에드·코토브라는 회교성직자가 설립했다.

코토브는 66년 낫세르대통령의 암살음모를꾸미다 적발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때 2백여명의 히그라당원이 함께 체포되었다.

그후 코토브의뒤를이은 슈크리·아메드·무스타파는 이집트뿐만아니라 아랍산유국의 자금지원을받아 단원을 4천명으로 늘리는등 세력을확장했다.

그들은 모든 現이슬람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코란을 따르는 헌법아래 이슬람總칼리프의 지배아래 둔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현대 이슬람사회에대한「신성한 증오」에 기반을두고있다고 말했다.

코란의 이름아래 이교도들의 피를흘리게하는것은 성스런의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대 이슬람국가의 지도자들마저 모두 이교도라고 몰아붙이고있다.

## 사다트 暗殺主犯 혼수상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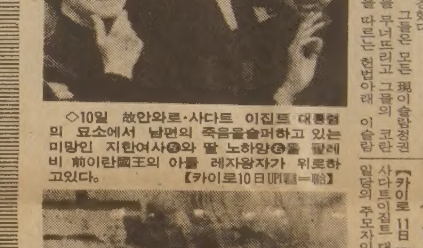
【카이로 11日 UPI AP=聯合】故사다트이집트 대통령 암살범일당의 주모자인 할레드·알·이슬람불리중위가 지난6일의 사다트저격당시 이집트보안군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압델·할림·아부·가잘라 이집트국방상이 11일 발표했다.

가잘라국방상은 이날 집권국민민주당기관지인 주간 마요와의 회견에서 이집트군정보기관이 사다트 피격전부터 이슬람불리를『수상한 宗派의 일원』으로 예의주시해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가 아직 혼수상태에 있기때문에 그에대한 혐의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공식확인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마요는 이날 사다트피격후 최초로 이슬람불리가 코에튜브를 끼운채 병원침대위에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가잘라국방상은 또 이슬람불리가 혼수상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문은 불가능하나 그의 공범은 광신도 1명 前예비군장교1명 前병장1명등 퇴역군인3명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잘라국방상은 이어 범인이 사다트저격을위해 이집트남부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총탄1백발·수류탄4개등을 구입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독자적인 것이며 다른 집단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묘소에서 남편의 죽음을슬퍼하고 있는 미망인 지한여사㊧와 딸 노하양㊨을 팔레비 前이란國王의 아들 레자왕자가 위로하고있다. 【카이로10日UPI합동=聯合】

◇위독한 사다트狙擊主犯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살해범인 4인中 주동자로알려진 이집트군중위 할레드·왈·이슬람불리가 저격입은 상처로 병원에서 위독상태에 빠져있다. 【카이로12日UPI합동=聯合】

## 크루즈配置에 반대 伊人1만여명 示威

【코미소(시칠리아)11日路透=聯合】약1만명의 이탈리아人들이 11일 시칠리아의 코미소邑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크루즈 미사일을 이탈리아 영토에 배치하려는 계획에 항의, 시위를벌였다.

공산당원들이 주동한 이번 시위는 크루즈 미사일배치반대기운이 西유럽의 다른나라들보다 적었던 이탈리아에서는 최대규모이다.

## 캄國주둔 베트남軍 어린이들에 毒사탕

### 카라멜에 70명死亡

【방콕12日AP=聯合】캄보디아 항쟁 세력인 크메르·루지는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이 어린 아이들에게 독사탕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콕에서 청취된크메르·루지의 민주캄푸치아소리 방송은 12일 바탐방주 마웅읍의 70명의 아이들이 이달초 월남군이 시장에 내다팔은 카라멜、레이크、과일및 야채를 먹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0개월간의 통치기간중 잔인성으로 악명높았던 크메르·루지는 월남군이 79년1월 그들을 전복하고 현 헹·삼린정권을 세우는데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여러차례 주장한바 있다.

## 메아리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잡은 영토는 독도이다. 정확하게 동경1백31도52분과 북위37도14분에 위치하고있으며 행정적으로는 경상북도울릉군에 속하고있다.

비교적 큼직한 동서의 2개섬과 이에따른 작은바위 섬들로 이루어진 화산도로서 동해 푸른바다위에 보석처럼 떠있는 아름다운 무인도이나 정치적인 파고가 높은 섬으로 한일 두나라 사이의 주목을 받고있다.

그런데 독도의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보이기는 1906년 즉 구한말광무10년 병오(丙午) 음력3월5일조에 「本部所屬獨島」라 한 것이다.

다른 한편 서구의 선박으로서 독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기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본국으로 독도의 확인을 보고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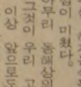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우리 지도로서 간행의 연도가 명확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했던것이 1520년 즉 성종25년의 일이며 이에 비겨 일본지도에서는 1773년에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마쓰시마」로 적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과 서구에서는 서로가 시대를 달리하여 동해 만경창파 한가운데 외롭게 뜬 독도에 대한 주목이 간헐적으로 이어져왔다.

### 獨島 학술조사

우리는지난달 28일에서 10월3일에 걸쳐 울릉도및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했다.

내무부와 한국자연보존협회의 공동사업으로추진된 이번 학술조사는 71년도에 이은 두번째의 조사이나 그 규모는 훨씬 커지고 조사의 내용도 알차서 이번에야 비로소 독도의 해도가 처음으로 작성되고 지형、수심、해저동식물종류에까지 관심이 미쳤다.



아무리 동해상의 고도라 해도 그것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이상 앞으로도 알뜰하게 살피고 가꾸는노력이 국토보존의 올바른 길일 것이다.

더구나 독도는 천해의 고도임에도 80여종의 해양식물과 21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천혜의 보물섬이나 다름이 없는데다가 사람의 자취를 멀리해온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이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개발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의 착수까지는 신중한 장기전망과 학술조사의 토대 위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 윤곽드러나는 이집트 反政勢力들

【베이루트11日AP=聯合】사다트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이집트 반정부 세력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있다.

이집트 國外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이집트 반정부 세력은 다음과같다.

▲이집트 민족 전선=사데던·샤즐리前이집트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78년에 결성되었고 산하에 많은 단체가 있다. 이전선소속 공산계인물인 미하엘·카멜에 따르면 이전선은 아랍과 유럽의 중요수도는 물론 워싱턴에까지 지부를 두고있다. 이전선은 추종자가 많지않은 공산계와 주도세력으로 자처하고있는 중립계로 양분되어있다고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낫세르 주의 청년단=레바논거주 이집트 학생들이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PLO의 한 게릴라支派인 親蘇系 팔레스타인 해방전선과 관련을 맺고있다. 카멜에 따르면 80년의 美팬텀기 폭파는 그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국제민주청년연맹=레바논 신문들에 가끔 그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집트 인 단체라는 것이외에는 별로 알려진바가없다.

▲이집트 아랍주의기구=남부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있으며 PLO의 초게릴라단체인 알파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 낫세르주의 청년단의 후세인·아아이단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남부 레바논에 전투병력을 가지고 있어서 반정부 활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있으며 지난7월의 팔레스타인 진지에 대한 이스라엘공세기간중에도 활동을 벌여 단원 4명이 사망했다.

▲해외거주 이집트 민족주의자단체=외교관들에 따르면 이 조직은 베이루트의 아랍 대학교수들중에서도 추종세력을 얻고있으며 낫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 통치기간중에 결성되었는데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별로 알려지지 않고있다.

# 이집트는 「제2의 피라밋」 잃었다"

### — 사다트葬禮式날… 카이로市는 靜寂속 再起기운

## 墓所에 몰린人波 軍저지받고 꽃다발만 전달

## 市民들은 TV앞에 "그는 愛情으로 다스렸다"

철시했던 카이로시내 가게들은 사다트의 장례식을 끝내고 12일을 전후하여 모두 문을 열었다.

거리에는 빨강고 노란 시내버스와 전차가 총전처럼 바쁘게 다닌다.

어느 도시보다 큰 자동차들의 클랙슨소리가 숨죽였던 거리에 생기를 돋군다.

카이로시내를 관류하는 나일강에는 江上버스들이 부지런히 왕래한다. 그 사이를 보트들이 수십척떠서 한가롭게 뱃놀이를 즐긴다.

야자수가 띄엄띄엄한 강변에는 각종 행상들이 장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랑말이 끄는 과일장수들의 수레가 줄을 섰다.

하얗고 까만 장의차림에다 번을 머리에 두른 회교도들의 무리가 나무그늘밑에 모여 서성거린다.

墓所의 찻집들은 만원이다. 모든 것은 계속성의 징후속에 움직이고 있다.

충격을 이겨냈다는 것인지 시민들의 표정은 담담하다.

30도가 넘는 더위속에 카이로의 태양은 눈부시다.

11일 카이로의 한 신문은 『사다트죽음의 반응을 담장나타내기에는 그는 너무 크게 이집트국민속의 입부분이 되어있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알아차릴려면 1년이걸릴것이고 정말 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10년후가 될것이다」라고 했다.

·종요건물과 그의 묘소에 배치된 경비망은 아직도 풀지 않았다.

7백여명의 각국보도진이 모여들어 뉴스센터가 마련된 중앙방송국 건물은 휴일동안 모래부대로 토치카를 쌓아무장 특수경찰들이 전투태세였다.

주인을 잃은 하안 대통령관저는 그앞뒤를 지나가는차량을 통제했다.

카이로대학과 이슬람대학등은 투표일까지 휴교한채경비경찰들이 출입을 일체금지한다. 큰호텔에 들어가는데도 입구에서 소지품을 철저히검사한다.

사다트가 묻힌 묘지에는장례식이후 연일 시민들이 몰려오지만 아직 환경정화가안됐다는이유로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서서 접근을막고있다. 이따금 검은상복을 입은 여인들이 찾아왔다가 군인들의 제지를받고는 들고온꽃다발만 맡기고 간다. 대신 한길건너 무덤맞은편에 있는 사다트의 마지막사열대가 시민들의 참배지가되어 줄을잇는다.

묘소가 있는 나스르시라는 곳은 카이로시에서 약 10㎞떨어진 군사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여의도광장같은 넓은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10월 전쟁에서 희생된 무명용사들의 무덤이 피라밋형의 기념물로 서있고 그 정면 다른한쪽에 상설사열대가 있다.

사열대의 정면에는 사다트를 겨눈 총탄이 스쳐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남아 찾아온 시민들은 사라진 지도자의상처를 쓰다듬듯이 한번씩 만져보고 간다.

장례식날 각국 원수들은 사다트가 총맞은 이 사열대에서 건너편 기념탑 피라밋밑에 묻히는 사다트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덤을 찾아 온 한 시민은 『사다트가 10월 6일, 1973년의 10월 전쟁 기념일인 바로 그 날 희생되어 10월 전쟁때 목숨을 잃은 전우들의 넋과 함께 묻힌 것은 상징적이다. 사다트는 10월전쟁이 최후의 전쟁이길바란 사람이었고 그 사다트가 마지막 전사자처럼 스스로 여기에 누웠다』고 말했다.

장례식당일 아침부터 카이로거리는 텅비어있었다. 시민들은 모두장례식을 중계하는 TV앞으로 몰렸다. 어떤 택시운전사는 『교통번잡으로유명한 카이로가 이렇게 죽음의 도시가 되기는 처음」이란다.

1970년 낫세르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시내부관의 다하날광장도 조용했다.

사다트의 장례식은 낫세르때의 소동을 생각하면 시내가 쥐죽은듯한것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비교다.

낫세르의 장례식때는 카이로시내 3백만~4백만시민이 몰려나와 아우성이었고 1백여명의 사상자까지냈다.

그때는 장례식이 카이로시내였기 때문이지만 사다트는 시외에서 거행된데다가 보안상 엄중히 통제를해서 극히 제한된 시민만이 참석할수있었다.

장례식을 TV로 보고 난 한시민은『사다트를 마지막보내는 시민의 환호성이 적었다고해서 우리가 사다트를 낫세르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텅빈 거리의 정적은 어떤 환호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마음속의 공허를 말해주는 것이다. 사다트가 낫세르로부터 이집트를인계받았을 때는 시나이반도는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었고 나라의 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시나이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경제는 이만큼 달라졌다」고 한다.

올해 64세의 타부리라는 의사는 『낫세르는 「전쟁의 스」이었고 사다트는 「평화의 스」이었다. 낫세르는 힘으로 국민을 다스렸으나 사다트는 애정으로 다스렸다』고 비교했다.

이 의사는『장례식날 나는 검은 넥타이를매고 TV앞에 앉아 울었다. 다음날 누이동생의집에 갔더니 누이동생의 눈이 빨개져있었다」고 말했다.

유세프라는 올해 41세의 카이로의 한식당주인은 4차례의 중동전쟁중 1956년, 1967년, 1973년 전쟁등 3차례참가했다가 20년간의 군복무끝에 3년전 중령으로 제대했다는 사람이다.

유세프씨가 대다수 이집트국민의 심정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었다. 대뜸『이집트는 제2의 피라밋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였다』고 사다트를 평하면서『그는 평화를 위해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집트를 크게일으켰다. 그는 온세계에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다. 온세계가 이집트를 신뢰하게 만든 사람이다. 장례식에 미국의 전직대통령이 3명이나 오지않았는가. 서구의 수뇌들은 거의 다오지 않았는가」라고 말한다.

장례식에 참석한 기라성같은 각국 원수들의 얼굴을 TV에서 본 이집트국민들은 세계속의 이집트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사다트의 존재를 새삼재인식했다.

◇삼엄한 警備속…사다트墓所 이집트군인들이 11일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묘소를 경비하고있다. 【카이로11日AP합동=聯合】

장례식뒤 한신문은 『사다트밑에서의 이집트는 전아프리카, 전중동에 있어서의 큰나라가 되었다. 군사력이나 강압에 의한것이아니라 성실성과 진실성에 의한것이다. 물론 자랑할만한 군사력을가지고있지만 한번 신뢰가 이루어지면 군사력은 사치가된다.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를 믿는다. 이것은 우리의 큰영예다」라고 보도했다.

유세프씨는 새지도자로 등장하게될 무라바크에대해 다른 이집트 대다수국민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건다.

『그는 사다트와같은 길을 걷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는 사다트와같은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고 그길을 걷지않을수 없을것이다. 그길은 이집트가 갈 유일한 길이기때문이다. 30년동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것이 무엇인가』

그는 사다트를 죽인 회교도의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배반자라고 부른다』면서『호메이니의 전철을 밟으려는 이집트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아랍다른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다른 아랍나라들은 우리편이 될것이다』소련에 대해서는 큰 경계심을 가지고있다. 10여년전 1년간 군사훈련차 소련에 다녀온적이있다는 그는 『67년전쟁에 졌을때 우리는 무기가 필요했는데 소련은 충분히 주지않았다. 소련은 팔레스타인문제해결을 진정으로 원치않고있고 소련의 세력을 심으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7천년의 문명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오랜문명국의 국민이다. 문명인은 비문명인보다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다만 평화를 위해 노력하던사다트의길이 영원한이집트의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카이로12日=金聖佑특파원】

## 海外토픽

### 肉類위장輸出 재판

★濠, 公文書위조혐의로

호주 멜번지방법원은 9일 말고기및 캥거루고기 위장수출과 관련, 71건의 공문서위조혐의를 받고있는 육류수출업자 리처드·하먼드씨(35)에대한 재판을 시작, 피고하먼드씨는 육류위장수출에 연루돼 지금까지 체포된 유일한 혐의자로서 지난달까지만해도 공문서위조 21건이 혐의사실의 전부였으나 이날의 재판에서는 50건이추가돼 모두71건으로 늘어났다는것. 【멜번路透=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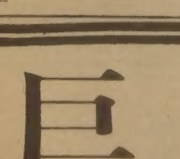
### 디즈니作品들受難

★桃色商 주역들이 盜用

디즈니랜드등 어린이들을위한 환상적 작품을 수없이 제작해온 월트·디즈니사는최근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및 도널드·더크등 그들의 작품주인공들을 포르노에 마구등장시킨 한 몰지각한 섹스숍을 상대로 명예훼손청구소송을 냈다고.

소장에 따르면 이 섹스숍은 그간 T셔츠에 난잡이들이 서로 혹은 동물들과 난교하는 모습은 물론 고결한 여인의 상징인 백설공주와 섬교하는 모습을 담아 판매해왔다는것.

디즈니사는 도널드·더크및 3마리의 어린돼지등 디즈니작품에등장하는 기타 주인공들도 여지없이 포르노의주인공으로 격하되고 말았다고분개하면서 디즈니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7만5천달러를 배상해주도록 이들업자들에게 요구. 【로스앤젤레스=聯合】



▲三星電子, CRT터미널輸出=三星電子는 美國의 하젤틴社와 컴퓨터주변 기기의 하나인 CRT터미널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82년부터 3년간 총 5만대의 CRT터미널 2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했다. 【사진】

## 필리핀 大洪水 한밤중 百63名사망

【타롬(필리핀)11日UPI=聯合】필리핀남부 다바오·델·노르테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가 9일밤 타롬부근의 광산촌을덮쳐 최소한1백63명이 사망하고 80명이실종됐다고 필리핀당국이 11일 밝혔다.


#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 NEW REDUCE PRICES
- 새로운경영, 새로운메뉴, 새로운 맛
- 한국요리
  - 즉석불고기, 멍게
  - 선지피해장국, 생선회
- 중국요리
  - 본고장의 진미, 중국식 부페
  - 매일 각종신선한 SEAFOOD써비스
-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가수 신현희 양

— 과거 미8군 무대에서 활약
— 오리엔탈 쥬얼스의 리더
— 유럽순회, 미국, 남미 순회공연
— 가수경력13년
— 악기(기타·쌕스폰)연주

웨이트레스 구함.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선남

# 動資部석탄국장 뇌물 1,940萬원 받아

## 「低質연탄」관련 서울市연료과장등 모두 6명구속

◇구속 수감되는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尹錫九씨。

◇수감되면서 카메라를 피하는 대한석탄공사 영업1과장 金侊洙씨 (앞) 와 서울시 산업국 연료과장 崔永珍씨 (뒤)。

저질연탄및 연탄폭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任尙鉉부장, 鄭烘原·朴柱宣검사)는 12일하오 연탄업자와 대한석탄협회로부터 뇌물을받은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尹錫九씨(47·이사관)와 서울시산업국 연료과장 崔永珍씨(46·서기관), 대한석탄공사영업1과장 金侊洙씨(39)등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 名節과 해외여행때 상납받아

검찰은 또 이사건에 관련돼 비위가 드러나자 행방을감춘 서울시연료과 지도계장 任宇彬씨등 서울시와 수뢰액수가 적은 동력자원부, 철도청 공무원과 석공직원등 모두12명을 인사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및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업자와 석탄협회 임원등 8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이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업자 3명을 포함 모두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석탄국장 尹씨는 지난79년2월부터 지난달25일까지 석탄협회와 연탄업자들로부터 모두 1천9백40만원을 뇌물로 받은혐의를 받고있다.

尹씨는 특히 석탄 협회장 李모씨(사망)로부터 지난 4월 석탄값인상직후에 3백50만원, 지난8월 연탄값 인상때 50만원을 각각받은것을 비롯 추석연말 해외여행때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는것.

서울시 연료과장 崔씨는작년12월말 正原연탄에대해 업무감독을 할때 제반편의제공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지난해1월부터 지난9월중순까지 모두 1백95만원을 뇌물로 받았으며 석공영업1과장 金씨는 지난해 6월20일 漢星연탄업무계장으로부터 양질의석탄을 배정해달라는 부탁을받고 30만원을받은것을포함 모두 1백60만원을 받았다는것이다.

검찰당국자는 이날『이사건의 수사목적이 증수회관계에 있다기보다 양질연탄의공급에두고있기때문에 동자부, 서울시, 석공에서 책임지를 한명씩 구속하는것으로 증수회관계수사는 일단락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석탄협회가 중심이된 연탄값인상을 둘러싼 로비활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폈으나 구체적내용을 알고있는 전회장 李씨가 지난달말 지병으로 사망, 정확한 로비활동내용을 가려내지 못한채 수사를 일단락짓게됐다.

## 관련公務員 12명 人事조치
## 뇌물준業者등 8명은 立件
檢察통보

## 야누스「연탄熱量」
### 「煉炭폭리」捜査에서 구속까지
### 制度的개선…再發 막아야
### 全대통령·격려…어정쩡搜査에 활기불어넣어
### 巨物로비스트死亡 賂物수사 차질

해설

「저질연탄」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성공한 이번검찰수사는 뒤늦기는 했지만 「생활경제사범」수사사상 큰수확이라는 세평을 듣는다. 「저질탄」에 골머리를 앓으며 달려오던 서민들에게는 「왜 지금까지 그 내막이 파헤쳐지지 않았던가」하는 의문과 함께 오랜 체증이 풀리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부검사들이나 울지검간부들조차 수사가 이같이 순풍의 돛처럼 풀려나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검찰이 저질탄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한것은 지난9월23일. 이전까지만해도 연탄의 질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이지만 선불리 손을 댔다가 정부의 연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욱 자극하고 수사는 검은 베일을 벗기지 못한채 벽에 부딪칠 위험부담이 뒤따라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

그러던중 특수1부의 소장 安大熙검사(26)가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상의 「無級炭(버럭)은 다른 양질탄과 혼합해서 연탄을 만들어도 안되고 탄광에서의 반출자체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들어 연탄메이커들이 무급탄을 섞어만든다는 사실을 캐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제안은 任尙鉉부장검사에 의해 채택되어 5일동안 자료수집을위한 내사를 거쳐 9월28일 11개연탄업제중에서 중간규모인 한성연탄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섰던 것. 현장수사에서 연탄의 실제열량과 서울시에 보고하는 열량보고서가 다를뿐만아니라 검사마다 실시하는 실제열량검사표를 찢어버린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했고 이것이 정체규명에 결정적계기가됐다.

이에따라 대메이커인 삼표·삼천리표·대성연탄등으로 수사는 확대됐으며 버럭을 사용하여 「질탄」을 만드는사실을 확인, 지난8일 3社의 대표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연탄이 점차 저질화하는 이유를 가려내어 이를 시정하게한것은 정책이나 제도상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치는것도 큰임무라고 믿는 검찰방침에도 딱들어맞아 일단 수사는 합격점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업자들을 구속하는 단계에 갈때까지도 관련부처의 공무원들까지 건드릴 생각은 없었다. 조용하게 인사조치하는것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다.

동력자원부의 석탄국장 尹錫九씨와 서울시산업국연료과장 崔永珍씨등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줄도 모르고 수사에 헌신적으로 협조하기까지 했다는 뒷소식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운데다가 지난9일새벽 全斗煥대통령의 연탄공장순시와 검찰에대한 수사격려는 결국수사방침을 바꾸어 관련공무원까지도 구속하는 선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제도개선」에다 「책임」까지 묻게된것.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서울시의 崔과장과 석탄공사영업1과장 金侊洙씨의 뇌물수수액은 1백만원대에 불과해 너무 적지않느냐는 반론도 없지않다. 수사에참가한 한검사는 『大魚(동자부석탄국장을 지칭하는듯)에 신경을 쓰다보니 서울시와 석공수사에 소홀했다』면서 뉴앙스짙은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뇌물액수가 예상보다 적은것은 주로 동자부와 서울시등에 대해 로비활동을 주로 도맡아온 대한석탄협회회장 李광호씨가 지난9월24일 사망했기때문에 협회가 소위 「뇌물을줬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있다.

이번 사건수사는 간단한 이면이 [illegible] 「저질탄」의 흉계가 지금까지 무사했던 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밝히는데에선 미흡한감이 없지않다.

여하튼 이번수사를 계기로 주부들이 새벽에 몇번씩 일어나야하는 「저질탄」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겠다는것이 국민의 여망이란 것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安津秀기자】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⑥⑦

5개월만에 내무부장관자리를 물러날때 차라리 속은 무척 홀가분했다. 새나라건설에 할일이 태산같은 마당에 서로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때 모함과 中傷이 亂舞하다니….

사실 정부로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출범한지 수개월만에 뚜렷한 잘못이나 이유도없이 장관이 물러나니 도무지 체모가 서지않은것이다.

장관을 물러나면서 한가지 크게 마음에 걸린 것은 對美借款문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장관재직을 전후해 1백여달러규모의 건설차관을 미국에서 들여와 식민통치의 상처를 씻고 나라 건설과 국토방위를 강화할것을 주장했으나 소견이좁은 사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못했다.

그때는 나라건설에 한시가 바쁜판에 사사건건 무슨 반대가 그리많은지 지금 생각해도 한심스런 일이었다. 一例로 고장난 자동차를 빨리 수선해 타고가자고 하다면 고장난 부분을밝혀내 빨리 수선하자는것이 아니라 많은 자리에서 왜 고장났느냐를 따지자는 격이었고 불난 자동차에서 빨리 뛰어내려 새차를 타자고 한다면 서로 붙들고 누구부터 뛰어내리느냐를 따져 결국 아무도 못내리고 같이 변을 당하자는식의 사고방식이었다.

국회안에서 공산세력에 동조하는 일부인물들의 행위는 아예 혼란과 파괴를 지향한 것이었다. 국회프락치사건이 그 대표적인 反證이다. 당시 아직도 사회가 어수선하고 左翼이 지하에서 暗躍했지만 소위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에까지 저들의魔手가뻗쳤을줄이야 누가알았겠는가.

48년 建國의 해가 저무는 겨울에 나는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많은 동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등뒤에서 날 비난하던 사람들과도 마주대하게됐다. 날 모함하던 사람들중에는 겉연쩍은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못본척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앞서 내무장관을 물러난뒤 나는 필리핀주재대사 발령을 받았으나 李承晩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부임을 사양했다. 발령을 받고도 그만둔것이다.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것은 그로부터 몇달뒤다.

49년 새해를 맞은 국회는 겨울날씨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제헌국회 開院당시의 뜨거운 감흥이나 同志愛는 이미 가신듯 했다. 각 政派나 세력이 뭔가를 준비하여 움직이는 눈치였다.

### 反民特委의 실패
### 國會복귀후 發足…「反民者」다수 체포
### 경찰과 特委間충돌로 말썽 活動中止

국회에 복귀한 지 얼마안된 1월 8일 反民特委가 발족했다. 反民特委는 48년8월 「1945년 8월15일이전의 악질적인 민족반역자를 처단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特委설치와 구성에 대한 방법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국회는 동의안이 가결된 한달 뒤 反民特委法을 통과시키고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을 선출했다. 특별검찰관중에는 그뒤 국회프락치사건에 관련된 盧鎰煥, 徐容吉의원등도 포함돼 있었다.

反民特委는 혐의자 체포에 나서 有名 無名의 인물들을 대거 붙잡아 조사했다. 特委는 중앙청에서 南大門路로 본부를 옮긴뒤 「反民者」체포에 더한층 기세를 올렸다. 나중엔 서울시경찰국 [illegible]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49년6월 경찰이 特委廳舍를 포위하고 特警隊員을 연행 무장해제를 시켰다. 행정부산하 경찰과 特警隊와의 충돌은 정치적인 말썽까지 빚은 끝에 反民特委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했다.

◇制憲國會부의장때인 1949년봄 安國洞자택에서 아들仁善군을 안고있는 筆者。

세상에선 내가 내무장관시절 反民特委활동을 방해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히려 정반대였다. 特委활동이 전개될때는 나는내무장관자리를 내놓은 뒤였다.

그러나 내가 反民特委의 지나친 활동에 反感을 가진것은 사실이다. 내자신이 特委에의해 親日派로 몰렸다. 당시 검찰관 20여명이 서명한 소환장까지 받았다. 일찌기 흥업구락부사건때 독립운동을한 혐의로 모진 고문을 당했던 나로선 日帝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사람이다. 나를 親日로 몬 인물들을 다시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중엔 진짜 親日의 인물도 있었다.

親日문제에대해선 나도 李대통령처럼 건국의 기강을 세우는 표상으로 「惡質的인 1級賣國奴」만을 처벌하고 그밖의 소극적인 親日은 용서하자는 입장이었다. 악질적인 친일파는 물론 제외하고, 고통의 暗黑期를 살아온 민중속에서 더이상 누구를 친일로 몰고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하는가하는 생각이었다. 건국의 기초를 닦을시기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않은가. 그들을 日帝下에서 일했다고 마구 잡아들이다보면 행정은 마비되고 비극적인 분열상이 또 벌어질 판이었다. 먼저 행정의 기초를잡고 나중에 新陳代謝를 시켜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족正氣를 분명 찾아야하되 민족화합도 중요한 일이었다.

反民特委의 뜻은 물론 좋았다. 그러나 일부세력의 책동에 의해 개인감정에 의해 행동이 과격해지면서 나중엔 「人民裁判」비슷한 양상을 띠기도했다. 당시特委의 비극적인 종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가 없다.

## 대규모土地詐欺團 10명구속
### 7億臺빼내 登記위조 팔거나 擔保로

서울지검 北部지청 형사2부(李元燮부장검사·羅炯洙검사)는 12일 토지전문사기단 두목 姜漢模씨(49·서울道峰區彌阿4洞7의62)등 10명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등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박수도씨등 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姜씨는 지난1월15일 서울江南區三成洞山13의2 金鳳嗣씨(45·여)소유인 대지8백평(싯가 4억원상당)을 가로채기위해 공문서 위조전과범 曺佾官씨(46)에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등을 위조하게 한뒤 이를 S유업 대표 韓喆善씨(48·서울城北區貞陵洞405)를 통해 서울東大門區上鳳洞130 금방전자(주인 윤병혁·50)에 1억2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매매관계서류를 넘겨받은 대표 윤씨는 이서류로 三星전자에 2억3천만원에 가등기설정해주고 4억여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출하받았다는 것.

姜씨등은 또 지난6월 서울江東區芳荑洞100 김복덕씨(45)소유 대지 3백70평(싯가2억원)도 曺씨가 위조한 서류로 제일생명에 5천3백만원에 담보로넣고 5천만원을 융자받는등 지난1월부터 6월까지 관리가소홀하거나 소유주가 불확실한 토지만을골라 5차례에걸쳐 모두 3천5백50평(싯가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부동산 소송사기에도 손을대 지난1월에는 사망한 신보행씨소유인 서울道峰區孔陵洞 산198에 있는 1천5백30평(싯가 3억여원)을 친자가아닌 신통환씨소유로 상속된것처럼 꾸민후 이를 싼값에 다시사는 숫법으로 가로채기도 했다.

## 수소통 爆發 꼬마 셋重態

12일하오 2시50분께 서울九老區始興1洞492 한양아파트앞 빈터에서 풍선을팔던 白南植씨(33·九老區始興1洞108의22)의 수소통이 폭발, 부근에서 놀고있던 이동네 金宮鎭씨(37·한양아파트9동223) 2녀 희정양(6), 3녀 유정양(3)과 崔學模씨(45·목마행상)등 3명이 파편에맞아 중상을입고 강남성심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중태다.

사고는 풍선과 솜사탕을 함께 팔고있던 白씨가 풍선에 수소가스를 넣는순간 옆에있던 솜사탕기계에서 튄불꽃이 수소가스에 인화돼 일어났는데 희정양등 어린이 2명은 이날부근에서 崔씨의 목마를타고놀다 변을당했다.

## 高女人 犯行사실 계속부인
### 女甲富 피살사건

서울龍山區元曉路 여갑부 尹景花씨(72) 일가족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제2회공판이 12일상오10시30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심리로열려 검찰및 변호인측 보충심문을 끝내고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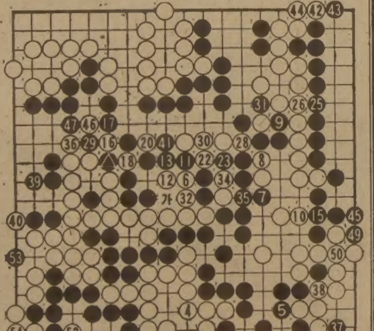
이날 공판에서도 高피고인은 서울지검형사3부 鄭相明검사의 범행동기및 범행당시의 상황등을 묻는 직접심문에 『경찰에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것이며 검찰에서의 자백도 경찰에 다시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한것』이라며 시종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尹씨의 양녀 김복래씨와 尹씨의 이웃집주인 김정자씨및 高피고인의남편 尹永培씨, 장녀 尹美暻양등 9명을 검찰측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변호인측은 高피고인의 직계가족전원과 龍山경찰서형사 하영웅씨, 高피고인이 근무했던 대한교육보험 동작지부장 이현복씨, 尹씨집 운전사 李文甲씨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高피고인에대한 신체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제4局 第11譜 204~254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敗〉
黑(6段)徐能旭〈1敗〉



### 黑, 機會를 놓치고 敗北

하변을 白4로 완생하게되자 徐6단은 적이 초조했다. 대세는 어언 白의수중에 들어가 黑은도저히 만회할길이 없어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급한 판단이었지 실상 黑이 최후의일전으로 승부를 걸어볼 찬스는있었다. 黑9로는 우선 참고도의 1·3으로 白을 이하 白18까지의 일대교환을 단행했어야 승리가 결정적이었던것이다. 참고도가 절대적인것인지는 속단키 어려우나 평소의 徐6단이면 당연히 과감한배수진을 시도했을 터인데, 이미 전의를 상실했을까, 아니면 수순에 착오가 생겼을까.

어쨌거나 白이 재빨리 10으로 연결해가서는 만사휴의다. 그제야 黑은11로 중앙을 막았지만 이것도 白28을 선수로 당겨 黑만 고약한 맛을 안게되었다. 黑11로는 32자리에 차단하고싶다. 그러나 다음白「가」黑12 白11 黑34면 白13으로써 여기에 큰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黑11, 13이 고작이었지만 白은16, 18의 강수로 22까지 선수. 결국 白34로 중앙이 터져서 승부는 끝난셈이다. 黑53에 치중하고 白54때 徐6단은 싹하게 돌을 거두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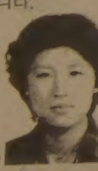
▲24…18, 48…16, 51…29, 21, 27…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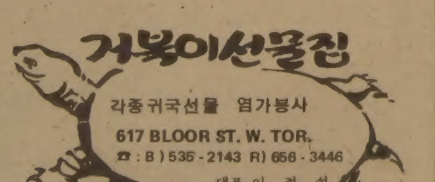
## 트레일러·트럭衝突 2명死亡 7명부상

【龜尾=聯】 11일하오5시50분께 경북龜尾市林隱洞 龍尾공단제2단지 삼거리에서 부산8바1558호 트레일러(운전사 尹섭봉·46)와 경북7나7771호2·5톤트럭(운전사 尹준환·31)이 충돌, 트럭적재함에 타고있던 姜유의씨(33·龜尾市工團洞265)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金진구씨(37·工團洞504)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2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B)438-6440 (R) 439-1335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Bayview Keele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 金煥珍 1次타이틀방어 成功

## 로페스 소극전…변칙작전으로 判定勝

◇打擊戰 14라운드서 챔피언 金煥珍㊧과 도전자인 로페스 가격렬한 타격전을 벌이고있다。 金은 막판맹공으로 열세를 만회하고 판정승했다. 【大田=金龍逸기자】

WBA J플라이級

아슬아슬한 역전승이었다.

프로복싱 WBA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26)은 11일 저녁 大田충무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종반맹공끝에 파나마의 도전자 알폰소·로페스(28)에게 판정승, 타이틀 1차방어에 성공했다.

金은 12회까지 심판채점에서 2−1로 뒤지고 있었으나 13회 접어들어 필사적인 혹 공격으로 간신히 五角을 이루고 마지막 14·15라운드서 공격을 주도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다.

15회가 끝난후의 심판3명의 채점표를 보면 왈테마르·슈미트주심(푸에르토리코)과 리처드·스틸 부심(미국)이 각각 145−144, 144−142로 金의우세를 판정했고 토니·페레스 부심(미국)은 143−143 무승부를 기록, 2−0의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점수차는 매우 근소했다.

金은 오는11월하순 日本의 신예 도까시끼·가쓰오와 2차방어전을 벌일 계획이다.

金의 종반대시로 막판에활기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타이틀매치의 긴장감이 없는 맥빠진 게임이었다. 챔피언 金의컨디션은 좋아보이지 않았다. 그의공격은 거의 모두 單打로 끝나 로페스에게 큰 위협을 주지못했으며 펀치력도 예리하지 못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아름다운춤을 출수있는것처럼 로페스의 소극적 경기운영은 게임의활기를 흐렸다. 로페스는 도전자의 기백을보이지못한채 시종 카운터펀치로 점수를노려 패배를 자초했다.

###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11일하오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을 1차방어에 성공한 金煥珍선수에게 축전을보내 치하 격려했다.

## 세계青少年蹴球

### 카타르、브라질擊破

【멜번=千一주특파원】濠洲에서 열리고있는 제3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패권은 西獨·루마니아·英國·카타르의 4強대결로 압축됐다.

아시아대표인 카타르는 11일 시드니에서 벌어진 준준결승에서 예상을 뒤엎고 강호 브라질을 3−2로 눌러 이집트를 4−2로누른 英國과 준결승전을 벌이게됐다. 또 루마니아와 西獨은 우루과이와 濠洲를 각각 1−0으로 눌러 역시 준결승에 올랐다.

카타르는 이날 FW할리드·알무하나디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수훈에 힘입어 강호 브라질을 격파하는 대회 최대이변을 일으켰다.

## 올림픽 서울 開催 IOC委員들 만족

### 金澤壽委員 밝혀

金澤壽IOC위원은 10일 모든 IOC위원들이 88년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결정된데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제84차 IOC총회에 참석하고 귀국, 이날 제62회 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金IOC위원은 9월30일 '88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후의 IOC내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하고 개최능력을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올림픽개최권을 부여한것은 IOC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日本의 기요까와 IOC부위원장과 마담베르유사무총장을 대동하고 내년4월 올림픽개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협의차 한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金IOC위원은 덧붙였다.

# 水泳서 記錄풍년

## 한국新 11 大會新 68

## 사이클7、射擊5 韓國新

## 서울金28、忠北15 忠南14

62회 全國體典

제62회 전국 체전은 대회 3일째를 맞은 12일 서울운동장을 비롯한 각 보조경기장서 중반의 열전을 벌였다. 12일 현재 모두 27개종목 가운데 수영경기가 끝나 남자부서 慶南, 여자부서 서울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영경기서는 이날 4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 3일간 모두 11개의 한국 신기록이 수립되었고 68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다. 사이클과 사격 종목도 12일에 한국신기록이 나와 이날 현재, 사이클에서 한국신기록 7개, 사격에서 5개를 기록, 수영 사이클 사격 3종목서 총2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메달 레이스에서는 서울이 金28, 銀11, 銅19개로 선두에 나섰으며 忠北이 金15, 忠南金14로 각각 상위그룹을 형성하고있다.

이날 수영남고 평영2백m 서 千仁泰(경북)는 2분33초6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慶南팀(崔學秀 金秀賢 姜昌範 姜錫仁)은 남일반 계영8백m서 8분37초59로, 남고계영8백m서 江原팀(崔普錦 金東基 宋永昊 白承仁)은 8분40초96으로 각각 한국종전기록(8분42초61)을 깨뜨렸다.

사격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서 서울팀은 2、276점으로, 2위 慶南팀은 2、257점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사이클 8백m 속도일반부 결승서는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골인했다. 1위 金炯國(강원)은 1분01초50의 한국최고기록으로 골인했고, 金永洙(경기) 崔丙昌(경북) 金鍾信(부산) 姜海信(전북) 尹富漢(부산)도 모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날 상오10시 참동리를 출발, 의정부를 돌아오는 20㎞ 단축 마라톤서 朴明培(강원춘천중2년)가 1시간04분14초의 기록으로 라이벌 崔珍赫(충남계룡고)을 3초차로 제치고 우승했으며 남일반5천m서 慶北의 崔慶烈은 14분14초12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메인·이벤트인 육상서는 이날 현재 한개의 한국신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알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종목에 포함된 경기의 한국신기록과 올림픽기록을 비교, 우리나라의 경기수준을 알아보기로했읍니다.

◇제3일기록

육상 (각종목 1위)

수영 (각종목 1위)

야구

▲일반부 준준결승 인천인하대 10−0 부산동아대 / 충북선무 7−0 대구선발 ▲동고등부 부산경남 8−1 전남광주제일 / 대구경북 4−4 충남북일 〈추첨승〉 / 인천고 4−3 전북전주 / 경북포철공 4−3 서울선린

농구

▲여고준준결승 전남송원 58−47 전북체고 / 경남마산 68−61 재일동포 ▲동남대 서울동국대 80−65 전남대 / 대구경북대 57−53 인천전문대 ▲동여일반 충남선발 81−36 인천선발 / 경기선경 71−50 전남선발 ▲동남고 경기삼일 71−58 전남광주 / 서울용산 80−43 강원제일 ▲남일반 강원선발 72−71 전북선발

축구

▲고등부준준결승 대구청구 2−0 인천체고 / 전북제일 0−0 충남대전상 〈승부킥4−2〉 ▲동 대학부 전북대학 2−0 재일동포 / 부산동아대 2−1 대구경북대 / 경북영남대 2−0 인천전문 / 서울고대 1−0 강원관동 ▲동일반부 서울시청 4−0 전북선발 ▲남고부준준결승 부산동성 3−2 강원속초 / 대구경북사부 3−1 경북체고 ▲동남대부

역도

▲동여고부 서울성균 3−0 대구경북 / 충남대학 3−0 경남마산 / 전북근영 3−2 충북제천 / 부산남성 3−0 대구경북 ▲동남일반 경북선발 3−2 재일동포 / 영남현대 3−0 전북선발 ▲동여일반 서울후지 3−0 재일동포 / 경남한일 3−1 대구효성

## 財産은닉 3년추적

### 休廢業…도주한滯拂사업주

노동부는 12일 임금을체불한채 휴폐업을했다하더라도 임금시효가 소멸된때까지 3년동안 사업주동향을 파악, 도주 또는 재산은닉을 막는등 근로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35개지방사무소에 시달한 체불임금 청산지도지침에 의하면 전체 기업에대한 근로감독권을 강화, 체불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사전에가려내는 동시에 일단 체불이발생할때는 각종 사채권에앞서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해당기업주에 대해서는 해외출국정지와함께 신병을 확보, 재산은닉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지방사무소별로 상습체불업체·청산불능업체·일반체불업체별로 구분, 지방사무소장이 직접 관리하며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업체는 지방사무소장이 월1회이상 임금지급일전에 반드시 현지 점검토록 했다.

## 히로뽕 密造 67億臺 규모

【釜山=駐】서울도검 부산지검 특수부(辛光玉검사)는 11일 히로뽕제조및 밀매혐의로

## 소매치기구속

### 유흥가 5千萬원 털어

【大邱=駐】大邱 南部경찰서는 12일 소매치기단을 조직한후 대구시내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수열파 두목 이수열씨(38·주거부정)등 5명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자들인 이들은 지난6월20일 大邱市 飛山洞 모 다방에서 속칭 수열파란 소매치기단을 조직, 지난 4일 하오7시30분께 飛山洞 오스카극장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김영주씨(37·경북永川郡琴湖邑)의 뒤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5천원을 소매치기한것을 비롯, 극장·시장등 유흥가를 무대로 지금까지 1백여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소매치기 해왔다는 것이다.

## 운전사가 음독自殺

【釜山=駐】10일하오5시께 부산西區新平洞128 신평동산중턱에서 가정불화를 비관한 운전사 羅相七씨(28·新平동1의2)가 극약을 먹고 신음하자 뒤따라온 처 경숙씨(23)도 음독, 부부가 모두 숨졌다.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귀엽기도 해라…강아지들이 나를 반기러오네" "자, 올라오라구… 집에까지 무등을 태워줄께"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여보 얼굴

# 20세기知性 佛레비스트로스敎授 來韓

◇11일 내한한 20세기의 지성 클로드·레비스트로스교수와 부인모니크여사.

20세기의 지성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이며 사상가인 클로드·레비스트로스교수(73)가 11일 하오4시40분 KAL편으로 내한했다.

부인 모니크·레비스트로스 여사와 함께 金浦공항에 도착한 레비스트로스교수는 초청측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高柄翊원장과 金炯孝교수 그리고 주한프랑스 대사관직원들의 영접을 받았다.

레비스트로스교수는 이날 공항에서 『그동안 남아메리카나 호주의 인디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연구영역을 확대하기위해, 그리고 최근 놀라운성장을 거듭하고있는 동양 한국문화와 동양문화에 대해 많은것을 배우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주의의 창시자인 레비스트로스교수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학자25명과함께 「친족과 사회조직」「신화학과 집합표상」「한국학과 동서양비교」등 세차례의 학술간담회를 갖고 慶州, 梁山通度寺 등을 현지답사할 예정이다.

## 流星의 賦 <206>

何處秋風至 ④

李炳注作 李友範畵

## 돌개바람 불다 ㉘ <225>

趙善作 金光培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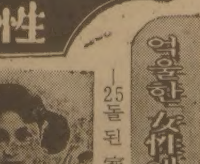
1981년10월11일

주간女性

억울한 女性에 사랑의 손길

—25돌된 家庭法律상담소「어제·오늘·내일」

愛人집 울린 가짜 男大學生
國內外 入養 실태와 문젯점
西獨출신 며느리의「한국頌」
논픽션 스티브·매퀸 ㊤
閉經 독신녀가 巨大兒 출산
모델이 다이어트 하다 死亡
사랑의 테마特輯「同性愛」편



<탤런트 俞知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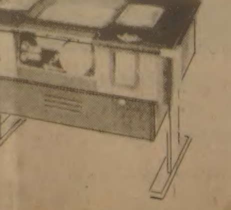
李瑛 탤런트 金容琳 市民이 주는 賞 탔다네

丁允姬의 美國行 가을 나들이 놓고 소문 만발

전자 오락 기계 (게임 머신)
판매 및 렌트

○투자없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여러종류의 머신을 주기적으로 교환
○신속한 에프터써비스(고장·수리)

※이익금으로 스토아 렌트 해결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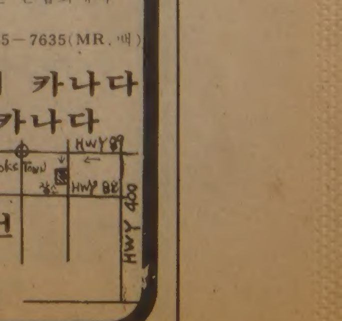
VIDEO AMUSEMENTS OF CANADA
MANUFACTURER'S OF COIN OPERATIVE VIDEO GAMES
임경진 (JIN LIM) 416/ 273·5323 276−3266

제4회
사격협회 창설기념 선수권 대회

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24일(토) 오전10시(우천불문)
장 소 : 토론토 · 건 클럽(약도참조)
참가비 : AA, A, B, C조(각35달러)
단체팀(3명1조, 각35달러)
주니어(20달러)
※위 참가비에는 실탄비와 디너값 포함됨
시 상 : 챔피온 1명, AA, A, B, C, 주니어 각각1, 2, 3등, 단체상
기 타 : ①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추천함
②당일 총이 없으신 분은 본협회에서 제공함
연락처 : 757−1097(MR. 한), 755−7635(MR. 백)

주최 : 대한체육회 카나다 지부, 재 카나다 사격협회




후원 : 충영사관, 코리언 저널, 민중신문, 한인실업인 협회